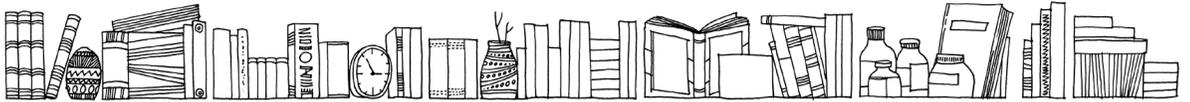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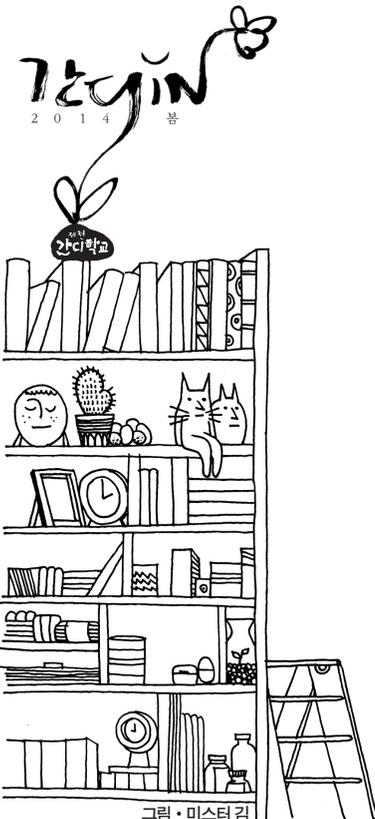
1학년 경재가 동네 아이들을 모두 태우고 끌어 주며 노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밖으로 하나 둘 놀러 나오는 아이들과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계절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학교에 새로운 얼굴들인 푸릇푸릇한 1학년들과 온 동네에 활짝 피어난 꽃들 덕분에 학교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봄바람 맞으며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요즘, 다들 펜스레 쓸쓸함을 느끼지는 않는지요? 올봄에는 모두 친구, 연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장우정 사진기자 (4학년)



차례

여는 글	2	봄을 돋우다
인턴십	4	학교의 꽃, 6학년들의 인턴십 이야기!
	8	학교는 축소된 사회다!
	11	세상 밖으로 나갈 간디인에게
반가워요 후원인	13	즐거운 인권 운동가, 쭈야 쌤!
우리끼리	17	간디 학교의 에너지, 1학년 신입생들 입장!!
배움 속으로	26	무한대로 주는 수업 뷔페
생활관 이야기	31	ㄷㄹㄷㄹ ㄷㄱㄷㄱ! (도란도란, 두근두근!)
	33	하늘마루 간식통 씨는 안녕하십니까?
	36	그 밤, 눈보라치네
	38	만화 생활관 이야기
사실	40	성교육 이야기: 10대의 연애
특집	44	채식과 밀가루 단식 문화에 대하여
화제의 인물	48	불꽃남자 김태우, 그에게 눈길이 간다
간디IN의 짧은 소식	54	간디인 스케줄러 / 간디IN의 짧은 소식
기자 후기	62	기자 후기





봄을 돋우다

한 별 편집장(5학년)

‘왜 우린 한 번쯤 서로에게 쑥스러워지면 안 되는가/ 왜 한 번 다정히 마주 보면 안 되는가/ 왜 한 번 꼭 껴안아 주면 안 되는가’ 송경동 시인의 ‘동생의 행운목’의 일부입니다.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언제나 한 귀퉁이에 꼭 적어 놓곤 했죠. 이 시구를 보면 한 번 더 고맙다 말할 걸, 미안하다 말할 걸, 따스한 말 하나 건네 볼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봄과 함께 돌아온 간디IN도 욕심 좀 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와 재미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줄곧 있던지라, 작년 겨울 기자 연수에서는 지면 개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기자들이 내리 몇 시간 동안 뽁센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원인 분들과 학생들 양쪽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작은 부분 하나도 기자들의 손길을 다시 거치게 되었지요. 봄맞이 새 단장을 하고서 여러분을 처음 마주하려니 조금은 떨립니다. 갖은 고민을 거쳐 세 꼭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숙형 대안학교의 학교생활 절반을 차지하는 기숙사. ‘생활관 이야기’ 꼭지를 통해 이제껏 소식지에선 잘 다뤄지지 않았던 기숙사 생활 속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합니다. 생활 속에서 기삿거리를 잡아내야 했기에 기자의 역량이

중요했는데, 왕년에 기숙사 마당밭로 이름을 떨쳤던 손채은 기자가 맡아 주어 4.19마라톤과 얽힌 기숙사의 핑크빛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고민 상담과 남·여 학생들의 만담장이 되는 생활 교사 미리 쌤과 수진 쌤의 시선이 담긴 글도 실립니다. 또 하나의 뉴 페이스는 바로 ‘간디 썰전’입니다. 종편 방송에서 논란 거리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그 주제에 대해 썰을 풀죠. 그것처럼… 이전까지의 소식지에서는 그런 종류의 이슈를 기자의 한 사람의 해석으로 ‘사설’에 담았으나, 학생들의 말을 직접 담은, 가공되지 않은 개개인의 의견에 주목해 볼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일상다반사의 원로인 조하한 기자가 맡아 ‘선후배 관계’를 주제로 기사를 썼으나 기자의 형식에 대해 재고해 보기로 결정해, 당분간은 여러분과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꼭지가 있는 반면 사라진 꼭지도 있는데, 공모 형식으로 간디인의 이야기를 담던 ‘간디인 톡톡’이 사라졌고, 간디인의 이야기는 간디인 갤러리와 특집 등의 청탁으로 녹여 내려 합니다. 이슈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 인터뷰 했던 ‘간디인이 만난 사람’이 사라지고, 대신 간디인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화제의 인물’이 생겨났습니다. 기자가 부족해 편집장이 맡아 쓴 ‘화제의 인물’에서는 쟁쟁했던 다른 3명의 후보들과 경합을 벌인 뒤 선정된 건장한 사나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의 화보에서는 장우정 사진기자의 진가가 드러나 ‘학교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잡지 인터뷰 같은 유머러스함과 화보를 통한 인물 재발견 등, 재미 요소가 한껏 들어가 웃으며 쉬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턴십 특집’과 ‘반가워요 후원인’ 꼭지를 맡은 이예슬기자는 후원인 인터뷰의 1단계 과정인 전화 인터뷰 약속을 2번이나 거절당했지만, 이후 ‘인턴십 특집’과 ‘반가워요 후원인’ 꼭지의 연결점을 찾아 6학년 김현정 양의 인턴 단체인 맥놀이로 외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거절을 던고 다시 부탁 드렸던 것도 대견한데, 서울 인터뷰 또한 재밌었다며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줘서 1년 째뱍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사설을 맡은 김민석 기자는 채식과 밀가루 단식을 주제로 기사를 쓰면서 취재를 위한 건지 개인 욕구인지 채식자 식단 시식을 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장 많이 편집장을 찾아와 함께 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지요. 기특한 마음에 여러 번 궁디팡팡 해주었습니다. 기사를 읽으실 때 김민석 기자의 남달랐던 열의도 함께 읽어 주세요. ‘배움속으로’ 꼭지를 맡아 개인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썼던 김예림 기자는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내려와 기사를 쓰는 열정으로, 마감을 지켜 주었습니다.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앞으로 김예림 기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반면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스케줄러를 그리는 이가원 삽화기자는 비 오는 날 가방에 넣어둔 그림이 물에 젖어 버려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다음부터 보관에 신경쓰시길! ‘우리끼리’ 꼭지에서 상큼한 1학년들 주제로 기사를 쓰게 된 이한슬 기자는 인터뷰 질문 하나하나를 선배 기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열심히 썼지만, 1학년 담임 쌤인 윤하 쌤과 인터뷰 약속을 잡지 못해

마감을 한참 넘긴 후에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지요.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간디인 갤러리’에 실린 익준이의 그림은 사실 2년 전에 받아 두었다가 잊어버리고 신지 못했던 그림인데, 그동안 소식지에 자신의 그림이 나오길 기다리며 편집장과 마주칠 때마다 ‘누나 내 그림 언제 실려…!’라고 말하던 익준이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일상다반사’에도 봄과 함께 찾아온 신입생들이 생겼습니다. 지원자가 역대 최고 인원이었던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상다반사’의 일원이 된 4명의 친구들! 여름 호에서는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으로 인해 4학년과 정환 쌤이 없는 만큼 신입부원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다반사’ 짬밥을 먹다 보니 어느새 5학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이라는 감투도 함께 얻었지요. 편집장의 이름으로 마감을 늦는 기사를 쪼고, 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은 매 호를 낼 때마다 늘 마감을 넘겨 글을 냈던 전력에 부끄러워 얼굴 붉힙니다. 그러나 얼굴 붉히면서도 기자들을 쪼고, 제대로 쪼이기도 전에 열심히 기사를 써 내준 기자들 덕에 봄 호를 여러분께 선보이는 지금은 부끄러워 얼굴 붉힐 일은 없을 듯합니다. 여러분의 호평에 발그레할 수는 있겠지요;) 이제 봄이 완연합니다. 간디학교의 봄은 언제 왔다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지만, 내 옆사람에게 따뜻했던 순간은 보다 더 오래 곁에 남아 있겠지요. 올 봄에는 한 번쯤 서로에게 쑥스러워도 보고, 한 번 다정히 마주 보고, 한 번 꼭 껴안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



학교의 꽃, 6학년들의 인턴십 이야기!

이예슬 기자(3학년)

입학식도 끝나고, 새 학기 새 학년에 적응을 다 했는데도 학교는 어딘가 허전합니다. 학교의 만이 6학년(고등학교 3학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학교 밖에서 '나'를 찾는 인턴십입니다. 제천간디학교의 6학년들은 한 학기(14주) 동안 외부에서 인턴십을 하며 지내는데, 인턴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기 위해 6학년 담임을 맡고 계신 선호 쌤을 인터뷰했습니다.

Q. 인턴십은 어떤 교육과정인가요?

A. 우리 학교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이라는 긴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잖아? 인턴십은 그전에 배웠던 모든 것을 사회에 나가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가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은 어떻게 추구되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 볼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14주를 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 근무를 해.

Q. 인턴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5학년(고등학교 2학년) 필수 수업 중에서 '진로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있어.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고,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

그걸 토대로 5학년 2학기에 계획 발표를 하고, 통과하게 되면 겨울 방학부터 자신이 선택한 단체에 가서 인턴십을 하게 되지.

Q. 인턴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리가 학교에서 나눔, 봉사, 생명, 평화 등 많은 가치들을 배우잖아? 인턴십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책 속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찾아가 보고 경험하며 삶의 체험으로 녹여 내는 거지.

Q. 인턴십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으로 보여 주었던 어리고 미숙한 모습보다는 성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이 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사회에서도 그 정도 나이의 학생들이 인턴으로 오게 되면 성인 대접을 해 주고.

Q. 실제로 학생들이 인턴십을 갔다 와서 많이 변화했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A. 인턴십을 갔다 오면 아이들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커. 인턴십을 하며 성인 대접을 받다가 학교에서 다시 학생 대접을 받게 되니까 어색한 거야. 학교에서도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서로 배려해 주는 점들이 많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사회에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

Q. 인턴십도 심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인턴십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학교에서는 거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간섭은 별로 안 해. 다만 단체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라고 해서 대기업이나 가게 아르바이트 등 이윤을 위한 기업을 갈 수는 없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단체에서 어떤 철학적 가치를 얼마만큼 추구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대부분 NGO나 사회적 기업 등을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중요해. 또 우리가 6월 초까지 14주간 하게 되잖아? 이런 기간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단체를 고르고, 계획을 짜서 조사하고, 전화번호 알아내서 연락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직접 써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성사되면 인턴십을 가는 거야.

Q. 이번 6학년이 선정한 단체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A. 올해는 작년보다 교육 분야가 조금 적어지고 해외가 더 적어졌어. 그리고 딱히 부각되는 성향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간 것 같아. 교육, 예술, 봉사, 인권, 생명, 평화... 인턴십 발표 때 보면 다양하고 재미있을 거야.

Q. 이번 6학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나요?

A. 해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비슷하긴 한데, 이번 학년은 조금 나뉘는 면이 있어. 재미있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틀에 갇혀 있지 않던 생활을 하다가 출퇴근에 종종 야근까지 하고, 기숙사에서 해 주던 밥을 먹다가 자취하면서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환영해 주기도 하고 '내가 이제 성인으로 대접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해하는 친구들이 많지.

Q. 담임이시니까 인턴십 현장을 방문하시잖아요. 가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가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지.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에 인턴십에 대해 소개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또 할 일을 많이 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기도 해. 아무래도 일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조직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역할을 바라는 거지.

Q. 자취하는 6학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A. 일단 여자 3인방-현정이, 지영이, 소은이가 같은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현준이랑 기중이도



자취를 하고 있어. 이외에도 하숙하는 친구나 친척집에 얹혀 사는 친구, 단체에서 숙식까지 해결해 주는 친구도 있지. 자취하는 여자 3인방은 조금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 밥도 직접 해 먹고, 좁은 공간에서 셋이 모여 사는 게 또 다른 경험인가 봐. 같이 사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

Q. 인턴십을 하면서 나이 등의 이유 때문에 일에 제약은 받지 않나요?

A. 나이는 19살이나 20살이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인턴십을 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 프로젝트 하나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마무리까지 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느끼는 곳이 많아서 일을 주기 힘들다는 단체가 많거든. 원래 계셨던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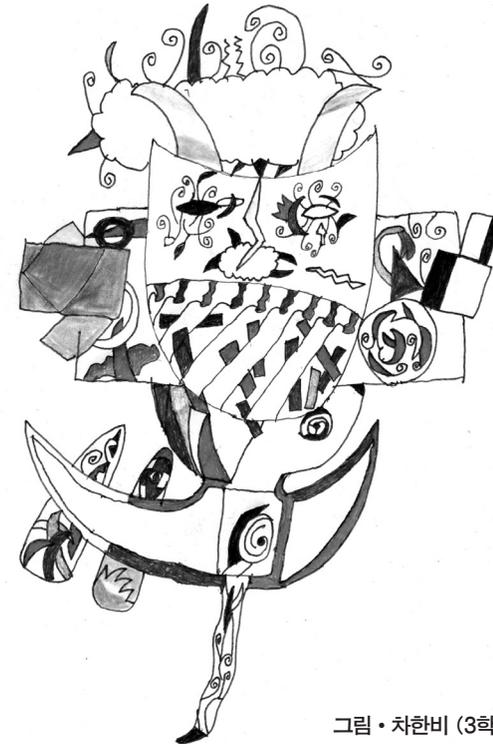


그림 · 차한비 (3학년)

학교에서 바라는 건 그보단 독립적이고 비중 있는 역할이니까. 단체 쪽에서도 일을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걸리나 봐.

Q. 6학년들이 제일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내가 보고 온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긴 했는데, 개인적인 성향으로 낯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친해지는 데 2주씩 걸리고 해서 조금 힘들어 하기도 했어. 또 생각보다 일을 많이 주지 않는 점이 아쉬운 친구도 있는 것 같아. 또 학생들이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긴 하지만,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전 자료들을 다 주고 읽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브리핑하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고문인 거지.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 뽕세계 일하는 친구들. (생활하는 걸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지. 자취하는 여자 3인방. 그리고 민지 같은 경우는 친척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인턴십 단체까지 편도로 1시간 반이 넘게 걸린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전철에서 보내는 거야. 좀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아직 지방까지 가 보지 못했는데, 그 쪽은 또 가 봐야 알겠지?

Q. 마지막으로, 인턴십을 준비할 미래의 6학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만 해 주세요!

A. 인턴십을 준비할 때 그냥 교육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때운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접근하기가 힘들 거야. 어떤 단체로 갈지 감 잡기도 힘들고. 또 사전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인턴십 단체를 정할 때 연락을 해도 바로 수락 받기가 힘들어.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겪는데, 미리 여러 단체에 연락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서 자신이 원하는 단체보다는 받아 줄 것 같은 단체에 연락하게 돼.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충분히 들여다본 후 가고 싶은 단체를 조사하고, 연락해서 허락 받고 계획을 짜면 인턴십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짧지만 중요한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하지 않겠어?

6학년 보살피느라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선호 쌤 감사드려요! 지금 인턴십 열심히 하고 있는 6학년들도 3개월 동안 소중한 시간 보내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 ♡



학교는 축소된 사회다!

김현정(6학년)

우와, 나 간디IN에 처음 글 써 봐!!! 아무도 나에게 글 부탁 안 하더니만 흥 핏 쳇...

제목 붙인 이유는 일이든 회의든 같이 사는 거든 뭐든, 사회는 학교의 확장된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 지영이(갑자, 19)와 소은이(춘춘, 19)와 자취를 하고 있어. 처음에는 '규칙 없이 행복하겠구나~' 하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살아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래서 회의가 아닌 반상회를 했지. 조그만 규칙이라도 정해 놔야 같이 살 수 있게 굴러가는 거였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회의 시간에 발언이 많은 특이한 사람이 있잖니? 사회에도 있단다. 그래서 회의에 단련된 우리 간디인들은 정말 보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각자 학교에서 해 왔던 활동들을 써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커!

나는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는데, 문화적으로 인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야. 처음에는 연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인권문화사업을 비롯해서 지역문화사업도 하고 있어. 홀몸 어르신 반찬나눔,

자기표현프로젝트 유모어¹⁾ 등 많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업은 할머니들과 연극 만들거였어. 봉천동에 자리한 '은빛사랑방'의 60대 할머니 분들이 어떻게 연극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맥놀이가 할머니들이 대사를 읊을 수 있게 연극을 만들었더라고. '노인을 위한 마을은 없다'라는 연극이었는데, 할머니들도 정말 좋아하시더라. 맥놀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들이 이런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까 생각하기도 해.

맥놀이는 단체의 일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맥놀이 사람들 각각 하는 일까지 따지자면 맥놀이 대표인 쭈야²⁾는 교도소 심리치료, 덕산 마을사업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등 하는 일이 엄청 많아. 각각 하는 사업들이 많기에 내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어 왜 일을 안 주시지?' 했어!!! 사실 처음엔 적응을 못했어!!!!

맥놀이가 추진하는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관이라는 곳과 같이 '인권연극제'를 준비하고 있어. 인권연극제 사업은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 그저 서기야... 그저 서기. 하지만 회의를 하면서(서기를 하면서...) 많은 인권 이야기를 들었고, 연극제 섭외를 하러 많은 단체들을 돌아다녔어.

하루는 쭈야와 함께 인권공부를 하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갔는데,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나 아이들의 고통이 영상으로, 이어폰으로, 벽화로, 돌에 글씨로, 사진으로 담겨 있어서 정말 심각함을 알고 박물관에서 울다 왔어. 벽에 '제가 살아 있는 증거인데, 왜 일본은 증거가 없다고 하나요?'라고 적혀 있는 문구가 기억에 남았어. 그래서 이런 문제(여성인권 문제)는 모두가 신경을 써야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나는 맥놀이에서 나름대로 쭈야랑 인권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지역문화활동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어.

나는 맥놀이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카페 '세상과 연애하기'에서 오픈마이크 공연 기획을 하고 있어. 세상과 연애하기의 설립 목적은 돈 버는



카페가 아니라 지역 마을사람들이 수업이나 모임, 워크숍을 할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지어졌어. 또 마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픈마이크 공연을 기획하고 있지. 연습실을 빌릴 돈이 없는 공연자들에게 연습실을 제공해 주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혁신학교 흥덕고등학교	일반 교육이 아닌 학생 자유를 지원하는 혁신학교
창작집단 날	인권 문제 창작연극을 하는 극단
장애인문화예술 관	장애인들과 함께 창작연극을 하는 극단
놀자 엔터테인먼트	관악구 지역청소년 기획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안부 문제 협의회
나비기금	전쟁 중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인권활동 모임
하자센터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
우리자리 공부방	관악구 공부방
청소년 휴카페 고래	관악구 청소년 쉼터
성장학교 별 [스타칼리지]	관악구 도시형 대안학교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관악구 도시형 대안학교

<표> 내가 만난 단체들

1) 관악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을 위한 독서 수업, 청소년을 위한 연극 수업 등이 있다.
2) '반가워요 후원인' 꼭지 참조.



세상 밖으로 나갈 간디인에게



최민현 (6학년)

있는 거고!
내가 첫 번째로 기획한 '봄+화이트데이'는 공연 수익으로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관악구 홀몸 어르신 반찬봉사에 기부하는 등, 문화를 인권과 연결할 수 있도록 했지.

두 번째로 기획한 '딤톡'은 인권과는 많은 관련이 없지만, 공연자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장을 대여해 주는 등 많이 문화 교류를 위해 지원해 줘. 공연기획 팀도 다 자원이야! 혹시 기획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말하도록 ~

그리고 관악구 청소년들이 모여서 홀몸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활동을 같이하고 있어. 봉사 동아리 '어깨동무'가 하는 일처럼! 이 일은 할머니와 학생들 서로에게 너무 좋은 기회 같아. 어떤 학생들은 봉사 시간을 채우러 오기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걸 보면 그래도 다들 뿌듯한가 봐 ㅎㅎ

이것 이외에도 자기표현 프로젝트 '유모어'나

인권연극제 추진 도우미, 흥덕고등학교 연극제 도우미 등 맥놀이(맥놀이)가 진행하는 일을 서포터하면서 인권을 공부하고 있고, 맥놀이 일 이외에도 나는 세상을 바꾸는 사업(오글...풀어 말하자면, 지역인권사업)을 많이 구상하는 중이야.

6학년이 되어 점점 사회에 나가는 것이 더 재밌어지니, 학교에서 뽕 뽑고 사회에 나가길 바라 :) ♪

나는 지금 하자센터(이하 하자)라는 거대한 단체에서 인턴을 하는 중이야. 하자는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야. 하자 내부에는 하자 작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영셰프 스쿨, 유자살롱, 그리고 소풍 가는 고양이로 알려진 연금술사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학교가 있어. 하자에서는 그걸 '네트워크 학교'라고 불러. 전에 학교에 온 노리단도 하자에서 만들어진 거야(지금은 독립했지만).

사실 처음에 나는 흥성에 있는 '청년 협업농장'이라는 곳으로 가려 했어. 계획발표도 거기로 했고.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딴 곳을 알아보다가 찾은 곳이 하자센터야. 부모님은, 무병을 전부 집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해서, 인턴은 집에서 공부하고 내 할 일 하며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유와 조금 시야를 넓혀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반대하셨지. 일단 아버지가 하자를 추천해 주셨는데, 하자가 크고 안정적인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쉬운 곳이란 것을 알고 있어서 하자로 오게 됐어. 내가 하자에서 하는 일은 카페 운영이야. 온종일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얘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야. 그 밖

에도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듣고, 하자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석해. 여기까지가 내 인턴십 이야기야. 그리고 나는 인턴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인턴이 어쩔지 궁금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려고 해. 일단 인턴십 장소에 너무 머리 쓰려 하지 마.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다른 곳에 가서 나와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하는지 배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도 받아들이면 가장 얻는 것이 많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피해야 되는 인턴 장소는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신경 써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이야. 나는 지금 멘토 분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 일지에 철자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카페 일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지. 처음에는 매우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였는데 한 달 조금 넘어가니 맞춤형도 글씨도 교정이 되고 있어. 하지만 멘토 분이 나를 신경 쓸 수 없다면 정말 힘들 거야. 인턴에서 가장 힘든 것이라 하면 할 일이 없을 때인 것 같거든. 멘토 분이 바쁘다면 일을 받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일을 적게 하게 되지. 그럼 매우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일거야. 다른 분들 일 열심히 하는데 혼자 놀고 있어 봐. 밥소사, 너무 말이 횡설수설해졌네.

인턴 장소를 정할 땐 논문 주제 정하듯 자기가 하고



즐거워 인권 운동가, 주야 샘!



이예슬 기자(3학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로 가득한 서울대 입구. 한 골목 안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웃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좁은 골목 한 쪽에서 몸으로 인권을 실천하고 있는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가 보입니다! 오늘 만나볼 후원인은 6학년 김현정 양이 인턴십을 하고 있는 단체 맥놀이의 활동가 김은미 씨인데, 맥놀이와 건물을 함께하고 있는 소풍 카페 '세상과 연애하기'에서 김은미 씨를 만나 재미있는 삶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싶은 곳만이 아니라 처음 해 보는 일도 해 봤으면 해. 물론 평소에 해 보고 싶었던 일도 좋아. 그리고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는 곳으로 찾아봐. 난 그런 곳을 추천해. 또 계획서 발표할 때 알아봤으면 하는 것은 인턴 장소를 찾고 나서 처음 전화할 때 많이 긴장될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서 딱 한 발만 더 나아가 전화를 해 보면 다음부터는 쉬워져. 그 다음에는 계획서를 쓰면 되지. 계획서를 쓸 때 절대 게으름 부리지 마. 정해지면 바로 그날 다 써. 계획서라는 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데, 게으름 부리다가 늦게 쓰는 거야. 당연하지만 발표하기 전에 한 번 쓱 읽어 보는 거 잊지 말고. 또 대분을 써 놓으면 더 좋아. 사실 말은 길게 써 놓았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야. 요약하면, 생각한 것을 바로 실행하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턴을 하면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인턴 장소를 찾았으면 해.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고 관심 있는 것이 있다면 그쪽 분야로 가는 것도 나쁘

지는 않겠지?
또 인턴 생활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인턴을 하며 얻고 느끼는 점은 사람마다 전부 다를 거야. 같은 곳을 가더라도 말이야. 마찬가지로 충고할 것도 없어. 하지만 인턴을 하면 언제나 의욕 있어 보이고 뭐든 하려고 해 봐. 필요 없어 보이는 것도 “제가 할까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 아이가 정말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을 하겠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는 인턴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이외에도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자면,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건 조금 힘들 거야. 난 인턴 생활 중 이게 가장 힘들어. 집이 먼 친구는 자취를 할 것 같은데 자취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하는 것을 추천해. 혼자 살면 밥을 잘 안 먹게 되거든.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을 추천해. 그리고 근처 부모님들에게 빌붙어서 반찬도 자주 얻어 가고. 나는 집에서 생활해서 이걸 잘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일지를 매일 짧게라도 좋으니까 꼭 써. 매일 담임 샘에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일지를 써 놓으면 여러 모로 편하거든. 나중에 몰아 쓰면 생각이 잘 안 나서 디테일도 떨어지고. 써 놓으면 샘이 좋아할 거야. 짬짬이 인문학 서적도 읽어 두면 좋아. 지금까지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이 글이 인턴 나갈 때 참고되길! ✨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김은미이고요, 지금 소속은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예요. 제 직업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웃음).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소개하긴 하는데, 제가 살고 싶어 하는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제가 스스로 설명하는 제 직업은 '돈 버는 백수'예요. 이유는 즐거운 일을 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스스로 돈 버는 백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예술 강사, 기획자, 연극 연출가 등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야'는 너무 딱딱해서, 부르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게 '주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본명을 별로 안 좋아해요(웃음). 너무 평범해서.

Q. 맥놀이는 어떤 단체인가요?

A. 맥놀이의 공식적인 소개말은 '인권문화실천모임'예요. 맥놀이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여러 사람을 일깨우는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처음 만들어진 건 2006년인데, '맥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본격적으로 연대하고 결의하며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2008년이예요. 초기 멤버들은 다 글을 쓰거나 비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같은 학교의 같은 학과 사람들이 모여,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아리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저랑 제가 아는 선배가 들어가면서 인권문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실천을 위해

Q. 별명이 '주야' 이신데, 그 유래가 궁금해요.

A. 제가 예전에 노리단(재활용 악기로 공연하는 단체)에 들어갈 때 지은 이름인데, 한자로 낮과 밤이 '주(晝)'와 '야(夜)'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을 잘 관리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는 의미로 지은 별명이에요.

연극이라는 매체로 처음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사연들 때문에 맥놀이를 극단이나 지역 단체, 청년 모임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맥놀이는 공식적으로 인권문화실천모임이에요.

Q. 맥놀이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저희는 제작년(2012)까지 성소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 왔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영역을 넓혀서 독거노인이나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며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독거노인 문제는 도시가 시골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도시에 계신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드시고 아무도 신경을 써 주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반찬을 갖다 드리는 등의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도시에서 청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백수나 잉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찾는 걸 도와주기도 해요. 또 이번 가을에는 '인권 연극제'라고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축제도 할 예정이에요. 공부 모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Q. '세상과 연애하기' 카페와 맥놀이는 어떤 관계예요?

A. '세상과 연애하기' 카페와는 2012년 정도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이 카페가 일반 카페의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소통 카페'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나 청년들이 여기로 와서 사람들을 초대해 공연도 하고, 워크숍도 해요. 현정이(6학년)가 지난번에 기획했던 공연도 여기서 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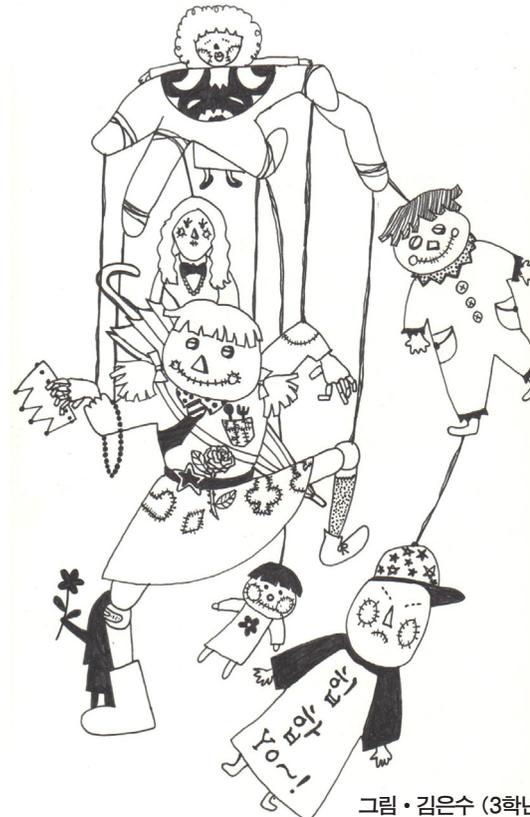
Q. 맥놀이에 들어오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PD수첩 작가를 했었죠. 방송(특히 다큐멘터리 쪽)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PD수첩처럼 누군가 고발한 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PD수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걸 다룬 적이 있어서 관심이 생기던 참이었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던 참에 맥놀이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죠.

Q. 지금 맥놀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A. 연극 연출도 하고 있긴 한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극 하나를 해도 기존에 있던 작품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맥놀이가 했던 작업 중에서 레즈비언 친구



의 이야기를 함께 각색하고 연극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주로 그런 작업을 하죠. 또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되는 작업 중에 덕산에 있는 간디공동체에서 했던 것도 있어요. 예전에 간디공동체에서 덕산 마을 지도를 그린 손수건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린 애가 원래는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림을 한 번도 그려 본 적이 없는 아인데, 그 친구한테 덕산에 있는 모든 집(다 합해서 한 80가구 정도)을 그리라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짜증도 많이 내고 싫어했죠. 굉장히 단혀 있던 친구라 사람 만나고 하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그리고 나니까 그 친구가 자기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 내가 그림도 그릴 수 있구나.' 하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연출보다 예술 강사,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어떤 계기로 연극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저는 원래 연극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바이올린을 되게 열심히 했고, 대학은 국문학과로 갔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상상한 걸 글이든, 연극이든 창작하고 표현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학회(동아리와 비슷한 개념의 공부하는 모임) 중에서 '희곡학회'에 들어갔어요. 그때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직접 배우가 되어서 연극을 올리는 거였죠. 그때 경험이 너무 재미있어서 더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 2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극을 더 공부했어요.

Q. 요즘 주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A. 지금 하는 일 중에서 교도소 죄수들과 인생 그림책을 만드는 게 있어요. 보통 '죄수'라고 하면 피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조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한 명 한 명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분들도 우리도 모두 개인의 소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문화예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권연극제 기획도 하고 있어요.

Q. 맥놀이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찾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알던 레즈비언 친구랑 같이 기획한 연극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가 자신이 자라면서 커밍아웃을 할 때 겪었던 아픔들을 적어 놓은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와서 저랑 같이 얘기하고 각색했어요. 그렇게 기획한 연극으로 처음 데뷔하는 날, 그 친구가 공연장에 부모님, 친구들을 불러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극으로 자신

을 당당히 드러내는 작업을 한 거죠. 그때 저 스스로도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연출가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저는 그런 식의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요즘은 인권 연극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인권운동가 분들과 연대해서 하는 작업이라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죠. 새삼 겸손해지고(웃음). 열심히 살아야 겠다고 느껴요.

Q. 간디학교를 후원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노리단에서 활동할 때 알게 됐어요. 서한솔(03학번), 유태영(04학번), 김범린(02학번), 그리고 몇 명의 간디학교 출신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 정도부터 계절학교에 초대받아서 '관계 맺기 워크숍'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용히 후원을 제안하시더라고요(웃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Q. 가끔 덕산에 오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A. 지금 양 샘이 대표로 계시는 간디 공동체에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고 지역으로 공동체성을 확장하고 간디의 철학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획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물론 실행은 공동체에서 하시고 저는 기획을 도와드리는 거죠.

Q.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A. 맥놀이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백수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인권 연극제가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나중에 양 샘이 청년학교를 만드시면 그것도 같이하고 싶고요.

주셨던 음료수와 과자만큼 맛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 김은미 씨! 조금 급했던 인터뷰 섭외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돈 버는 백수' 되시길 바라요! :) 🍷



간디학교의 에너지, 1학년 신입생들 입장!!!

이한솔 기자(2학년)

2014년 봄, 허전한 간디학교의 빈 공간을 채워 줄 푸릇푸릇한 1학년 신입생들, 빠 빠바라바빠 반 친구들이 왔습니다. 1학년 이미지 설문, 담임 윤하 샘 인터뷰, 그리고 입학식 취재까지!!! 새로운 1학년을 맞이하며 함께 가 볼까요?



김승훈



김예현



류소정



박성현



신윤항



오다민



오승택



유한울



이령경



이재형



이창범



이한결



장경재



전하늘



전하진



최문형



최민정



최유경

간디학교의 새로운 활력소, 1학년 신입생 첫 번째, 이미지 설문

본격 빠빠바라바빠 반 소개!! 1학년을 대상으로 서로를 더 잘 알아 가기 위해 이미지에 대한 설문을 돌려 보았다.

1. 후배 들어오면 잘 해 줄 것 같은 1학년

-오다민, 신윤희

2. 학생회장 선거에 나갈 것 같은 1학년

-이한결

3. 농사를 잘 지을 것 같은 1학년

-이창범, 장경재

4. 가장 어른스러운 1학년

-이한결

5. 제일 시끄러운 1학년

-이한결, 전하늘

6. 가족회의에서 발언 많이 할 것 같은 1학년

-최문형

7. 논문 1차 통과할 것 같은 1학년

-오승택

8. 제일 용 될(잘생겨질) 것 같은 1학년

-이창범

9. 가장 애교 많을 것 같은 1학년

-전하진, 최민정

10. 가장 간디스러운 1학년

-이창범, 김예현

11. 가장 힘이 셀 것 같은 1학년

-유한울

12. 연애 가장 먼저 할 것 같은 1학년

-오승택

13. 가장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은 1학년

-김승훈, 최유경

14. 가장 아담한 1학년

-전하진

15. 제일 고독을 즐길 것 같은 1학년

-유한울

16. 볼과 가장 잘 어울리는 1학년

-류소정

17. 가장 천진난만한 1학년

-이재형

18. 가장 수다스러운 1학년

-이령경, 박성현

간디학교의 새로운 활력소, 1학년 신입생 두 번째, 담임 김윤하 쌤 인터뷰

Q. 1학년들 반 분위기는 어떤가요?

A. 즐거워하는 것 같아. 선배들도 많이 도와주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처음과 다르게 입학식 이후에 그동안 숨어 있었던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지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거는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 같고,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아주 밝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Q. 이번 1학년들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잘 모르겠는데.(웃음) 힘은 안들고... 나는 되도록 저학년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줄여 나가고 싶어. 특히나 규칙이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것에 되게 민감해. 그래서 고학년들한테도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1학년들은 좀 적응을 해야 하니까, 행동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좀 쉼 보자 하는 입장이야. 힘들지는 않아.

Q. 작년 6학년을 맡다가, 이번에 1학년을 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글썄, 1학년들 담임을 아무도 안 하겠다 그래서?(웃음). 그냥 그렇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특별한 계기 없이. 작년하고 다른 점은 예전엔 아이들이 적응

을 잘 못하고, 잘 못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짜증을 낸다거나, 막 야단을 쳤었어. 그런데 이제는 '저러다가 6학년이 되면 또 사람다워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는 않아. 그게 좀 다르다면 다르달까. 나 스스로 조바심을 잘 내지 않는다는 것.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Q. 1학년들이 윤하 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A. 음... 그냥 멀리 있는 아저씨 정도? 아주 관심이 많지도 않고, 담임이 좋다 싫다의 평가를 할 만한 가까운 사이는 아니야. 부담임 쌤이 새로 오신 아름 쌤이어서 그런지, 관심은 주로 아름 쌤같이 젊은 분한테 가있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나이 많은 아저씨 정도 취급을 받고 있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애들이 아름 쌤을 좋아해서 얘기도 하고.

Q. 1학년을 맡아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그전에 해 봤다가 많이 까먹은 것들. 그러니까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아이디어가 다시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것. 고학년이 되면 그런 걸 써먹을 일이 별로 없지. 다들 알아서 잘 하니까. 소풍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고, 프로그램에



행사도 많고, 잡혀 있는 일정도 많고. 그래서 소풍은 5월 달 넘어가서 하기로 했어.

Q. 마지막으로, 1학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A. 사람을 잘 사귀어 봐라.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계산하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안 돼. 그게 자기 이미지 관리지. 마음으로부터 안아 주고, 사랑해 주고 해야지. 또 이 안에서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간혹 그러잖아. 저 친구는 기타를 잘 치고, 저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저 친구는 연극을 잘 하고, 저 친구는 공부를 잘 하는데, 나는 아무런 특징이 없어.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 공간이 되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에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니까. ✂

대한 고민도 해 보고.
 (그렇다면, 힘든 점이나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것? 하나하나 봐 줘야 하니까 같이 있어야 되고. 고학년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그냥 시작할 때와 마무리 결과할 때, 이 정도만 체크해 주면 방향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1학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옆에 있어 줘야 하잖아.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지.

Q.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학급 활동이 따로 있나요?
 A. 벌써 다 써먹었는데.(웃음) 음... 같이 목욕 가기? 고기도 한탕 구워 먹어야지. 그런 건 기존에 다 했던 것들이야. 3년 후 나에게 편지 쓰거나 간담회도 벌써 한 번 했고. 소풍은 원래 이번 주에 꽃구경 갔다가 목욕탕 가기, 그게 안 되면 고기를 구워 먹을까 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가정학습 끝났는데도 집에 가는 친구가 세 명이나 돼. 그리고 4월은 워낙 주말에

간디학교의 새로운 활력소, 1학년 신입생 세 번째, 뽀뽀바라바뽀 반 입학식

2014년 03월 15일 토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학식 날이다. 모든 학교 행사 중 가장 상큼발랄한 입학식!! 강당에서 입학식을 하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기숙사 앞마당에서 입학식을 한다. 새로워진 입학식에 신입생들은 모두 들뜬 표정이다. 이번 입학식 콘셉트는 '놀이동산'이다. 무대 꾸미기 담당인 2학년들은 무대에 풍선 불리고, 풍선다리 세우고, 피에로 분장까지 쉴 새 없이 바빠 보인다. 따스한 날씨와 스피커에서 나오는 신나는 노래는 간디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들을 반겨 주는 듯하다.

입학식 시작 1분 전!

Q. 입학식 시작이 5분 남았는데, 기분이 어때요?

A. 김예현(1학년): 긴장돼요.

최문형(1학년): 떨려요.

신비아(2학년): 떨려요. 떨리고 설레요.

김태은(2학년): 무대 꾸미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좋아요.

드디어 레드카펫이 깔리고 입학식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풍물동아리 슬피바람에서 손 샘의 태평소에 맞춰 구수한 가락을 울리며 오프닝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이 끝나자, 2학년 담임 소영 샘이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3학년의 입학식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다. 3학년들은 한참 유행했던 영화 <겨울왕국>을 패러디하여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는 재미있고 신선한 뮤지컬을 보여 주었다.

본격적으로 1학년들이 입장했다. 노래가 나오고 멘토들이 자신의 1학년 멘티를 소개해 주면, 한 가족씩 풍선다리를 통과하여 무대 위로 올라왔다. 레드카펫 옆에는 2학년 전하성 군과 정영학 군이 놀이동산 콘셉트에 알맞게 피에로 분장을 하고 풍선을 나눠 주었다. 1학년 가족들이 차례대로 무대 위에 올라가 가족 소개와 짧지만 굵은 이야기를 하며 입학식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1학년 소개가 끝나자, 1학년의 담임이신 윤하 샘께서 인사를 하셨다. 윤하 샘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한 소절을 낭송하며 재치 있고 재미도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어 부담임이신 아름 샘이 학생증을 나눠 주셨다.

다음으로 수진 샘, 종명 샘, 상현 샘, 아름 샘, 후조 샘, 정호 샘의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그리 는 세상>을 불렀다. 아름 샘이 랩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간디학교와 잘 어울리는 가사라는 생각



이 들었다.

다음 순서는 손 샘의 인사말이었다. 1학년 18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며 유익한 환영의 인사말을 남기셨다. 다음으로, 고등학생회장 조하한 군이 올라와 학교에서 사고 많이 치고 많이 혼나고, 부모님들께서는 혼내지 말아 달라고 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재미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미도 있는 말이었다.

주황색 반티를 입은 13학번 2학년 부모님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다. 간디학교 교가인 <바위처럼>에 맞춰 울동을 했다. 사람들도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2학년 부모님들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다음으로, 입학식의 진정한 하이라이트!!! 입학식이 학교 행사 중 가장 상큼 발랄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 귀엽고 깜찍한 1학년들의 공연 순서였다. 바로 Boney M이 부른 <SUNNY>였는데, 뒤돌아서서 모자



를 쓰고 있다가 노래 반주가 나오자 차례대로 모자를 벗으며 시작하는 멋진 연출을 해냈다. 사람들의 큰 박수와 함성에 맞춰 귀엽게 춤을 추며 공연을 마쳤다. 같이 생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멋진 단합력을 보여 준 무대였다.

1학년들의 공연은 끝나고,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선글라스, 몸빼 바지에 뽀글이 가발을 쓴 사람들이 등장했다!! 알고 보니 입학식 마지막 공연을 장식할 1학년 부모님들이었다. 시작부터 달랐던 등장, 신나는 리듬의 <나성에 가면>이 나오고,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올랐다. 1학년들에게 지지 않는 귀엽고 깜찍한 춤을 췄다. 중독성 강한 노래 멜로디는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특이한 의상은 공연을 더 화려하게 해 주는 듯했다. 노래가 끝나자, 1학년 부모님 모두가 무대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세상>을 불렀다. 재밌고 신났던 이전 공연과는 또 다르게 모두 마음 따뜻해지는 공연이었다.

1학년 부모님들의 공연이 끝나고, 모두 <바위처럼>

을 부르며 입학식을 끝맺음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레드카펫이 접히고, 입학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러 학교로 내려갔다. 뭔가 허전했던 학교의 빈 공간이 이번 신입생들로 메꿔져서 다시 학교가 꽉 찬 느낌이 들었다. 또 강당에서 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기숙사 앞마당에서 야외공연으로 입학식을 했던 것도 새롭고 더 기대되었던 것 같다. 시작 때는 따뜻했지만, 갈수록 쌀쌀해지는데다 바람도 부는 탓에 2학년들이 만든 플래카드가 날아갈 뻔한 일, 입학식 시작 직전 겨우겨우 세워 놓았던 풍선다리가 바람에 날려 쓰러질 뻔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입학식이었다. 간디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14학번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14년 03월 15일 토요일, 14학번 빠 빠바라바빠 반 간디인이 되었다.

어떤가요? 1학년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 보니 더 궁금해 지지 않나요? 간디학교에서 날개를 펼쳐 나갈 14학번 친구들, 앞으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



무한대로 주는 수업 뷔페

김예림 기자(4학년)

“어우, 이번 학기 수업 시간표를 봤더니 정말 들을 게 없더라고요. 해 보고 싶던 수업은 필수 수업하고 겹치고, 만날 비슷한 수업으로 꽉꽉 차서 배우고 싶은 게 없었어요.”

생소한 단어인 ‘개인프로젝트’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수업이다.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수업 계획을 세우고 수업을 꾸려 나가는 개인프로젝트. 하지만 이렇게 멋진 수업을 우리는 잘 몰라서, 책임이 부담스러워서, 귀찮아서 멀뚱히 떠나보내고 만다. 자! 언제나 재미없고 지루한 학교를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을 들여다보자!

개.인.프.로.젝.트 뭐 하는 건지 볼까?

개인프로젝트는 개설된 수업 중에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이 없거나, 다른 수업과 시간이 겹쳤을 때 개인이 수업을 개설하여 배우는 수업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결과물을 낸다는 점이 학교 중등 필수교육과정인 대주제프로젝트와 비슷한 형태이다. 만일 어느 날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고구려의 역사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학교 역사수업이라고는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 서양고전읽기밖에 없다? 이럴 경우 고구려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책과 고구려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열정과 끈기만으로 개인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열정과 끈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의 결과물을 교과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하고, 지도교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다른 수업과 동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해 놓은 수업 시간에 따라 학점도 받을 수도 있다.

개인프로젝트를 해 본 학생들은 배우고 싶던 것을 수업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베이킹처럼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개인프로젝트는 가능해서 좋았다, 나를 중심으로 두고 진행되어서 그냥 수업보다 편안하다고 말했다.

옛날 옛적 개인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개인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간디학교가 2002년 제천으로 이사 온 지 3년 후의 일이다. 개인프로젝트가 생긴 2005년엔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 모든 시간표가 채워져 있던(1교시 영어, 2교시 과학, 3교시 수학 같은) 식에서 벗어나 선택식 수업과 중·고 통합과정을 결정했고, 대주제프로젝트와 개인프로젝트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인프로젝트가 현재까지 내려오는 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과정이 하나 더 숨어 있었다. 바로 ‘교사 없는 수업’. 교사가 없는 수업이라니, 어쩐지 말이 좀 이상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으로 학생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없는 수업’은 기본 수준이나 계획을 가지고 학생이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학점이 주어진 수업이다 보니 시간 지키기, 재료 준비, 학생 지도, 평가 등 책임을 학생이 져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집중식 수업에서도 비즈, 제과제빵 등의 ‘교사 없는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때 역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나 마무리에 있어서는 깔끔하지 못했고, 현재는 ‘교사 없는 수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의 표는 2008년도 1학기 개인프로젝트 신청 현황이다. 이게 뭔가 싶을 만큼 엉뚱한 것부터 이런 수업이라면 들어보고 싶다 하는 수업들도 보인다. 학년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에서 개인프로젝트를 수강

〈표1〉 2008년 개인프로젝트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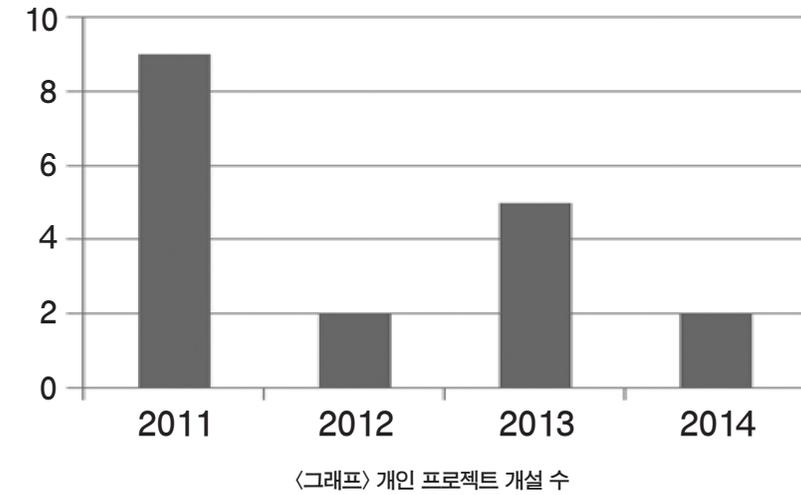
학년	신청자(지도교사)	주제(학점)	계
1	강한울(박철중) 신지성(김동희) 전유진(김동희) 김겨레(김동희) 김태원(김동희)	나만의 드림 만들기(2) 피아노 첫걸음(1) 피아노 첫걸음(1) 피아노 첫걸음(1) 피아노 첫걸음(1)	5명 5건
2	남성우(손진근) 권수지(김동희) 이인지(김동희)	축구 프리스타일(2) 피아노 첫걸음(1) "	3명 3건
3	김혜민(김태진) 김혜민(김동희) 김은정(김동희) 고예솔(황선호) 김현지(손진근)	그림그리기(2) 피아노 첫걸음(1) " 노래부르기(2) 한자 배우기(2)	4명 5건

4	백동훈(홍상미) 전수빈(김동희) 안예지(김동희) 이예영(김동희) 김유진(김태진) 이범진(김수자) 강주원(황선호)	태양열 오븐 만들기(2) 경상도 사투리 익히기(1) " " 그림 그리기(2)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요리실습(2) 노래 초보에서 벗어나 중수 도달하기(2)	7명 7건
5	윤이원(김동희) 박철중(김동희) 라운정(김동희) 라운정(양자영) 전유림(황선호) 한이정(김태진)	피아노 첫걸음(1) " " 이것저것 글 써 보기(1) 노래 연습(2) 색감과 표현 기법 공부(2)	5명 6건
계			25명 27건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 2014년도의 개인프로젝트는 어떨까? 학생이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서 학교의 분위기며 개인프로젝트의 현황 역시 많이 달라져 있겠다. 줄었는지, 많아졌는지, 더 엉뚱해졌는지, 지식교과가 많아졌는지, 움직이는 활동이 많아졌는지... 모두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다.

학년	신청자	주제(학점)	계
1			
2			
3			
4	안다연(김수자)	여성학입문(1학점)	1명 1건
5	정나린, 한별 (김정환)	독립 이후의 남아메리카 근현대사와 민 주정치를 이룬 인물들(2학점)	3명 3건
	양성민(김수자)	여성학입문(1학점)	
계			4명 4건

〈표2〉 2014년 개인프로젝트 신청 현황



이 좋은 걸 왜 다들 안하지?

호익, 비교도 안 되게 개인프로젝트의 수가 줄었다. 게다가 점점 더 줄어 가는 추세다. 배우고 싶은 거 맞춰서 가르쳐 주고, 하고 싶은 거 하면 학점도 준다는데, 진짜 이 좋은 걸 왜 다들 안하지?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프로젝트는 학점이 있으며, 학기 내내 꾸준히 수업을 진행할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지도 교사를 선정해야 하며, 결과물 역시 필수적으로 내야 한다. 혼자서 결심한 다이어트가 오래갈 수 없듯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부담과 귀찮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연구부의 수자 샘 말에 따르면 수업이 다양하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서 강사와 학부모 참여로 수업이 다양해진 것도 개인프로젝트가 줄어든 이유에 한몫 한다고 한다. 또한 프로젝트수업, 동아리,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에너지가 해소되는 것 역시 이유가 될 수 있다.

1학년 때 책읽기, 2학년 때 베이킹과 피아노를 하며 개인프로젝트 최다 수강자에 오른 3학년 이예슬 양에게 개인프로젝트의 단점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러자 자기계발을 위해 패기 넘치게 신청했던 수업을, 하다 보니 귀찮고 힘들어서 미이수를 하게 되었다며 결과물을 내야 하는 점 역시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소모임 형태로 영화로 보는 역사 수업을 진행하는 권효연(4학년) 양은 목표가 있기보다 좀 다른 수업 방식을 원했기에 개인프로젝트로 신청할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개인프로젝트가 아닌 수업으로 신청하려면 다시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했다. 또 올해 필리핀해외이동학습으로 수업 일수가 맞지 않아 어



ㄷㄹㄷㄹ ㄷㄱㄷㄱ! (도란도란, 두근두근!)

손채은 기자(4학년)

안녕하세요! 새로운 꼭지의 등장이라서 조금은 놀라셨나요? 이 꼭지는 학교 생활 속 이야기뿐 아니라 기숙사의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재미난, 가끔은 진지한 얘기를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어느새, 겨울이 지나 조금씩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봄이 다가오려고 한다. 가끔은 쌀쌀하기도 하지만 종종 바깥 평상 위에서 잠든 간디인도 볼 수 있다. 날씨가 따사로운 게 아니라 요즘 기숙사에서도 부산스럽고 훈훈함이 도는데 아마 4.19 때문인 것 같다. 4.19혁명을 기리는 정신계승 마라톤이라고는 하나, 이성끼리 손을 잡고 뛰는 마라톤인 만큼 기회를 엿봐 자신의 마음을 보여 주는 날인 것 같기도 하다. 그 때문에 서로 먼저 짝꿍을 정하려고 밤만 되면 기숙사 만광에선 4.19 짝꿍을 신청하며 쑥스러워하는 남녀를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기사에서 기숙사의 훈훈한 얘기를 꺼내 보려고 한다.

〈어라? 너무 귀여운데?〉

1학년 여자아이는 A양, 2학년 남자아이는 B군이라고 하자.

B군은 교내 학생회 ‘오지랴’에서 주최한 마니또 프로그램에서 A양을 뽑아 그녀의 마니또가 되었다. 그전엔 B군은 A양이 누군지도 잘 몰랐다고 한다. 근데 마니또를 뽑고 ‘그 애가 누구지?’ 하고 A양을 본 순간, 너무너무 귀여웠다고 한다. 그래서 마니또가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소등 시간에 B군은 A양을 기숙사 만광으로 불렀다. 그러곤 A양에게 ‘너 뭘 사람 없으면 나랑 4.19 뛰자.’라며 4.19 신청을 했고, A양은 B군의 신청을 수줍게 받아 줬다고 한다. 그때까지도 A양은 B군이 자신의 마니또였는지 몰랐다고 한다. 필자는 사감 쌤 방 앞 벽에 기대어 B군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 봤다. ‘아직도 A양이 귀여워?’ 그랬더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

〈우리가 첫 4.19 짝꿍〉

1학년 여자아이는 D양, 2학년 남자아이는 C군이라

쩔 수 없이 소모임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개인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 부담감이 덜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예슬, 권효연 양을 비롯해 이번 학기 개인프로젝트 여성학을 수강 중인 안다연(4학년) 양은 개인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활성화되어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개인프로젝트의 문제점이 생긴 이유는 학교 시스템 문제인 걸까? 아니면 학생들의 무책임일까? 위에서 말했듯이 이유는 다양한 부분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필요 없지 않은가 싶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개인프로젝트 역시 굳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열려 있는 배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개인프로젝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한다. 한 번쯤 수업을 개설하지 않고 모든 수업을 개인프로젝트로 대체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한 학기 개인프로젝트를 이수한다는 것은 6년 학교 생활 중 큰 의미로 남을 것이다.

학교 요즘 진짜 재밌어!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아니면 근 2년간 학교가 아주 끔찍하게 지루했다거나 대부분의 날들이 집에 가고 싶다, 방학 언제하나, 가정학습 언제하나 하는 이야기들로 지나갔다. 그러다가 몇 명이서만 몰래 마니또를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가 너무 설레고 재미있었다. 하긴 학교가 어떻게 매일 즐거울 수 있겠냐 싶지만 재밌는 일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했다. 기숙사 사감 쌤인 미리강은 애들이 매일 심심하고 지루하다고 하면서 뭔가를 할 생각은 않는다고 한다. 개인프로젝트든 소모임이든 지루하고 심심하다면 일을 벌여 보자.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 본다. 간디학교는 그 꿈을 찾아보라고 뷔페를 열어 주었다. 우리는 이제 아무 음식이나 먹어 보면서 고르는 일만 남았다. 셀프라고 해서 안 먹지 않으니까^^ 시간 될 때 후딱후딱 먹어 보자. 이 지루하고 피곤한 학교에서 이번 학기 개인프로젝트를 해 본다면, ‘학교 요즘 진짜 재밌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지도.

자료를 주신 소영 쌤, 수자 쌤, 인터뷰해 주신 수자 쌤, 정한 쌤, 권효연, 이예슬, 안다연 양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고 하자.

C군은 D양과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고 한다. 항상 C군이 D양에게 장난을 쳐 괴롭혔기 때문. 그런데 점점 C군이 D양에게 장난을 치는 만큼 친해졌단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소등 시간에 C군이 D양에게 4.19 신청을 했고, 그렇게 4.19 첫 커플이 탄생했다. 4.19 첫 커플 소식에 간디인들은 술렁거렸고 초조해했다. 게다가 요즘은 C군이 D양에게 개인 마니또를 해 준다는 소리도 있다. 필자는 D양과 같은 방이었던지라 D양이 취침 시간에 개인 마니또에게 편지를 받는 걸 목격할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아, 여기 좀 수상하다. 잠깐, 필자는 C군에게 4.19를 신청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물어 봤다. 그러자, C군이 멋쩍게 웃더니 '친해서?'라고 했다. 옆에 있던 친구 K군은 '에이~ 좋아서? 좋아서?!'라고 간죽거렸다.

'분명히 3월 초부터 4.19 신청이 쇄도하겠지?' 하면서 글을 쓸 준비를 했으나, 테드라인은 3월 28일이었고 시간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오히려 짝꿍은 안생긴다. 어쩌나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짝꿍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진 짝꿍들만 뽑아 냈다. 근데 어라라? 3월 28을 이틀 앞둔 저녁. 갑자기 짝꿍들이 마구마구 생겨났다는 소리를 들은 거다! 웬지 기숙사가 조금 소란스럽다고 느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나 보다. 은근슬쩍 마음을 표현하여 맺어진 짝꿍도 보이고, 그냥 친해서 쿨하게 뛰자고 한 짝꿍도 보이고, 시끌벅적하다. 이런 일엔 심드렁해진 4학년도 재잘거리는 같은 방 1, 2학년으로 인해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기에 다 못 담아서 아쉬울 뿐!

웬지는 모르겠지만 기숙사에 있으면 배고파지는 게 사실이다. 그럴 때면 나름대로 기숙사 내공으로 허기



그림 · 이기원 삽화기자 (4학년)

를 채우기도 한다. 이 배고픔으로 인해 학년 구분 없이 함께 나눠 먹으며 선배와 후배끼리의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쩔 때 이로 인해 사건, 사고가 터져 다들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에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싱글 병글이다. 쉴 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언제나 즐거워 보인다.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하늘마루(기숙사 이름) 소식을 들려 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 드려요! ♡



생활관 이야기

하늘마루 간식통 씨는 안녕하십니까?

미리강(여자 생활 생)

반짝반짝 빛나는 철통과 비교해 보니 조금 울퉁 약간 불통 간식통에선 세월의 더께가 묻어난다. 주인 잘 만나면 때 빼고 광낼 수 있는 호사를 누리겠지만, 여간해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무시도 많이 받는 모양이다. 뱃속 가득 먹을 것을 품고 기다려야 웃는 낯으로 고이 모셔다 놓을 일인데, 누군가 깜빡하고 더럽혀진 것을 방구석에 처박아 놓기라도 하면 온갖 궁시렁과 비난이 하염없이 쏟아지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화난 사람 옆에 있다 밧길 질이라도 당할라 칠 땐 어찌 저런 존재로 태어났는지 안타깝기도 하다. 밧이라도 달려서 걸을 수만 있다면, 손이라도 달려서 스스로 씻을 수만 있다면 온갖 것 스스로 해서 당장 시간 맞춰 만광(만남의 광장)으로 뛰어갈 텐데, 누군가의 손발을 빌리지 않고는 움직이질 못하니 좀 처량한 감도 든다. 방 주인의 손에 들려 방으로 향하면, 흡족한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배고픈 손길들이 그이 뱃속을 탐험하는데, 먹지 않아도 배부름이란 말이 이때 어울릴 듯 싶다. 그는 그 순간 사랑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채움의 시간은 사랑의 찰나를 지나 이별의 순간이라 말하고 싶을 정도로 잠깐. 이 찰진 시간이 지나려 하니 약간의 불안증세가 나타나려 한다. 그를 향했던 시선들



은 하나 둘 멀어져만 가고, 몸은 알 수 없는 무늬들과 냄새들로 가득해진다. 빨간 얼룩소무늬였다가 미끄덩거리는 반짝이었다가 기하학적 달걀껍질 모자이크 무늬였다가 버섯과 미역과 고춧가루가 혼재된 출처미상의 무늬였다가 때론 흔적은 미미한 채 오롯이 퀴퀴함만으로 도배된 채 씻길 시간만 받아 둔 신세가 된다. 관심의 대상 밖으로 밀려나니 웬지 세상의 밤 그림자는 모두 그의 것인 듯하다. 순간 다른 방 친구들 소식이 궁금해지면서 움직일 수

도 없는 몸을 마음으로 달그락거리며 텔레파시를 보내 본다. 오늘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만광에 일찍 나와 있는 이들은 누군지, 나와 있는 이가 혼자라면 외롭진 않을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들이 많다면 하루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최고의 에피소드는 무엇일지, 밤새 밤참통 노릇하느라 힘든 친구는 누군지, 누가 뜨거운 가스 불에 데었는지, 어디 던져지거나 주먹질을 당한 이가 있는지, 간식통을 다시 눈치밥으로 채우고 있는 이는 누군지, 사랑받는 친구들을 시샘하는 이들이 있는지 심심한 틈에 계속 되물어 본다. 그러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이 때론 주체로 때론 객체로 전환되며 살았던 그 자신의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 순간, 삶의 무상함이 느껴진다. 더불어 방주인들도 6년을 살면 나름 생각도 커지고 환골탈태라는 것을 하기도 하던데, 그보다 2년도 더 산 자신이 아직도 작은 것에 연연해하며 타령만 일삼고 있다 생각하니 나잇값을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임이라는 것에도 익숙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움직일 수 없다는 불리한 조건을 무기로 너무 방 사람들만 타하며 산 것은 아닌지 뒤 돌아보게도 된다. 재미난 다른 것들도 한 번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뭐 할 수 없는 나머지는 방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봐도 될 듯싶다.

어떻게?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한 후 탄탄한 그의 근육 비스 무리한 것을 모아 뜨거운 물을 받았던 기운을 담고 사람들에게 외쳐 본다. 들릴지는 미지수지만 ^^

“이보오~ 방사람들~ 같은 말을 쓰진 않지만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당신들과 공간을 나눠 쓴다오.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당신들과 마음의 공유라도 하고 싶소. 잠깐이지만 우리 입장이 조금 되어 본다면 어려운 일은 아닌 듯하오. 어찌하여 주인의 입장에 놓였는지는 모르나 서로 인연이니 잘 살아 봅시다. 일단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하자면...

“이왕 씻는 거 좀 깨끗이 씻어 주시요. 대충 물에 헹굴 때는 여간 찝찝한 게 아니요. 화장실 세면대 말고 사감 샘방 싱크대에서 비누 좀 묻혀서 구석구석 좀 닦아 주시요. 잘 닦아 주면 무척 개운하여 그날 하루 기분이 짱!이러오.”

“만광에 좀 일찍 보내 주면 어떨겠소? 나도 내 친구들과 수다라도 떨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오. 간식 주는 시간 임박해서 내주면 간식 받자마자 방으로 가야 해서 친구 얼굴 볼 시간도 없단 말이요. 방에서 잘 대접받을 땐 좋지만 그것도 혼자일 땐 좀 외로우니까. 잘 알잖소? ^^”

“나도 늦은 밤엔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고요한 달빛 별빛 찬란함에 취하고 싶은데 밤마다 몸예다 뜨거운 물과 짹매콤미끌 라멘으로 범벅을 해 놓으니... 이

거 원 말도 못하고, 나도 좀 쉬고 싶소.”

“거... 씻겨 주기 싫으면 차라리 어디 혼자 텅굴만한 장소에라도 잠시 두시요. 물 나오는 곳으로... 자꾸 서로 씻겨 주기 싫은 티 팍팍 내니까, 그렇잖아도 봄 타는데 미칠 지경이요.”

“남은 음식 찌꺼기 버릴 때 좀 살살 다뤄 주시요. 여기저기 쿵쿵 내리치니 아파 죽겠소. 명도 든 적이 있단 말이요. 뭐 이외에도 많지만 이것만 알아들어도 허허~ 당신이 좋아질 것 같소~ 이것들은 우리의 말이니 혹시 우리에게도 전하고픈 말이 있으면 전해 주시요. 최선을 다해 들어 보겠소. 아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나 있는 동안은 잘 살아보는 것 어떨소? ^^”

그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어딘가로 실려 간다. 뜨거운 물이 들어오더니 쭈글쭈글한 인스턴트 면들이 풍덩거리고 매콤짹짹한 가루가 쏟아진다. 후룩후룩~ 바쁜 젓가락질을 하는 방주인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뭔가 긴장한 듯하면서도 행복한 모습이다. 그때 뭔가 다른 발걸음이 그의 온몸을 휘감는데, 방주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남남거리며 먹느라 바빠 보인다.

‘아, 어찌지... 웬지 누군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웬지 이 방으로 들어올 것 같단 말이지. 아, 촉을 세우니 감이 아주 선명해! 와우~ 그래, 어디 한 번 온몸을 다해 방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누군가 이 방을 향해 오고 있다고...’

“저...저... 오고 있어요! 그...그... 그 분!!! 그 분이 이 방에 들어올 것 같다고... 오늘은 지나치지 않을 거야. 그럴 것 같다고!! 내 말 들려? 나 몸 막 흔드는데 보여? 안 보여? 아, 답답해! 나 좀 봐!! 어서 정리해!!”

저벅저벅저벅... 똑똑!

“애들아~ 뭐... 하니?”

“.....”

“음...!”

하늘마루 중정(중앙정원)에 있던 나무 한 그루에서 꽃이 피었다. 어떤 나무일지 해마다 궁금했는데, 작은 소원 하나가 이뤄졌다. 황홀하고 황홀해서 가슴이 터질 듯했다. 4, 5년 전쯤에 두 그루를 심고 그 중 한 그루가 살아남은 것인데... 자두 꽃이랑 많이 닮은 걸 보니 올 여름엔 자두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다리다 먹는 열매 맛은 얼마나 달콤할까. 애들아~ 이런 신선한 것들 좀 많이 먹자~ 라멘은... *^^* ♪



생활관 이야기

그 밤, 눈보라치네

김수진(남자 생활 생)

짙은 물비린내 나는 눈보라
 바람이 분다
 저 바람 다 어서 오나
 온 산 들녘 하얗게 물들인 찬 눈물 쏟아내린 밤
 한참 타들던 별빛
 애타게 내려왔던 그 밤
 창문 열어
 찬바람 맞으니 참
 시원타
 한참이나 막막했던 가슴 안은 밤이었다
 가슴이 기억하는 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밤은 차차 잊혀지는 겨울의 그림자
 아이들 밤새 떠돌던
 수많은 단어들 속에 꽃피워
 한창 겨울이 그리워지던 찰나
 문득
 한 걸음

하염없이 내린 눈 뵈으며
 옮기는 걸음마다
 하얗게 애타게
 저물어 가는 밤
 밤의 그림자가 서린 내 방 창문
 이렇게
 또 널 그리워하기 전에
 나는 창문을 닫아야 한다
 어제의 나는
 이미 오늘의 밤이 되어
 저 바람에 실려
 흩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밤을 잊지 않기로 하자
 그 밤을
 견뎌 아침을 맞이하기로 하자
 쌓인 눈 녹을 때까지
 한참이나
 서성거린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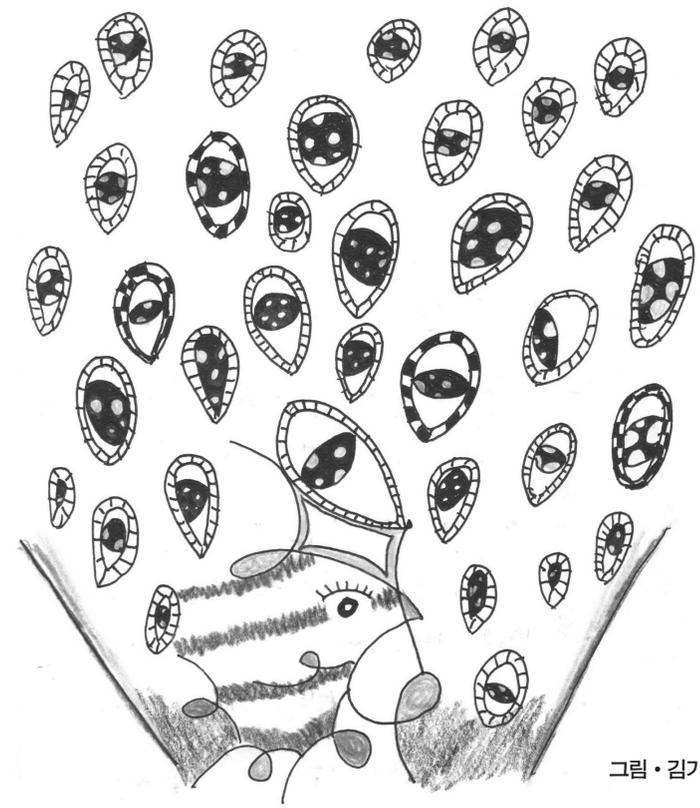


그림 · 김기람 (3학년)

시작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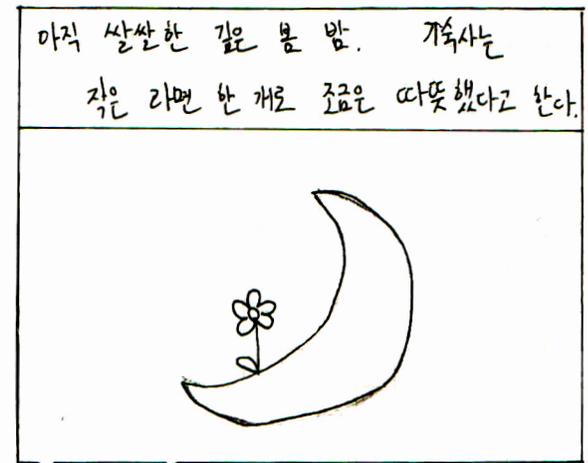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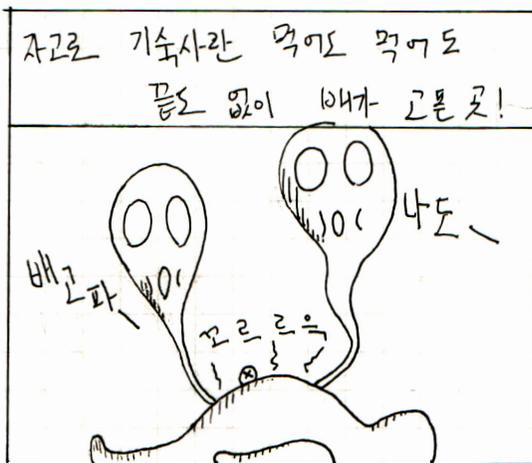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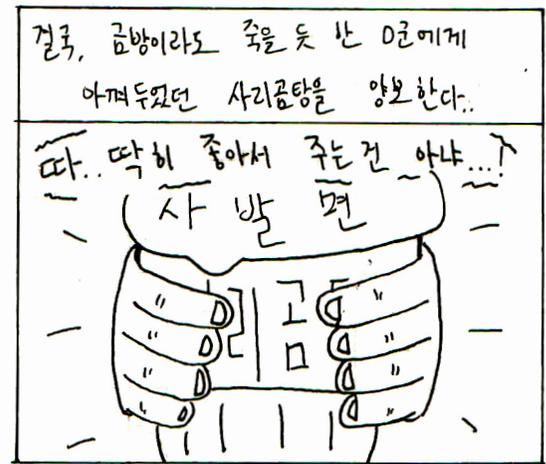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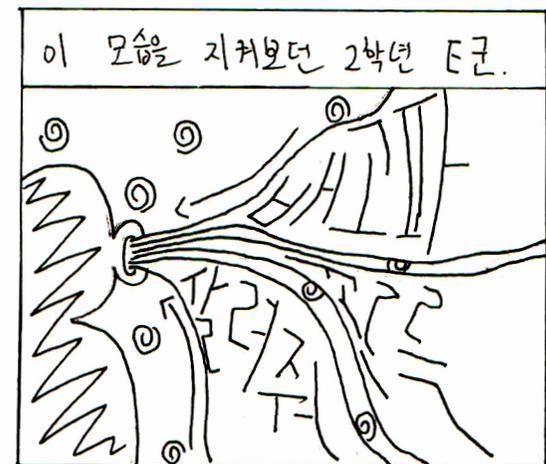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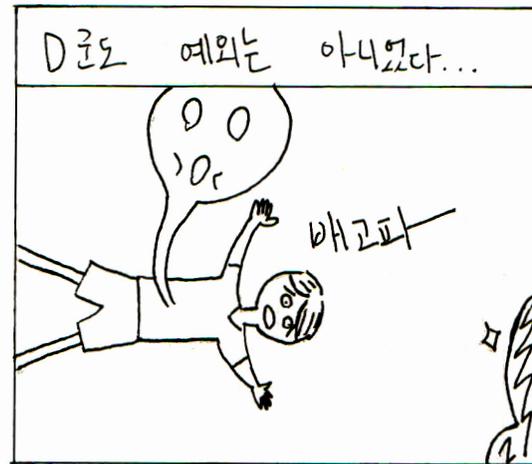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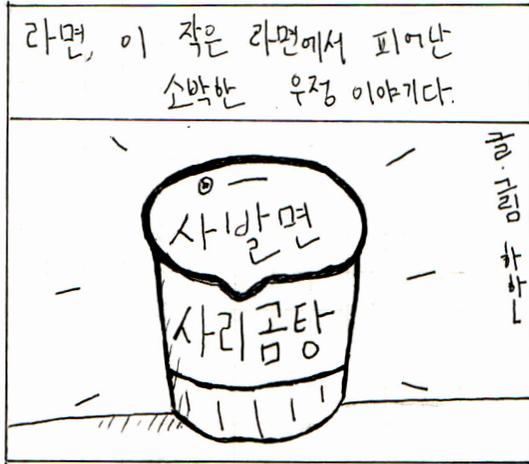
겨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제천간디학교 기숙사는 참으로 고요한 섬이었다. 새하얗게 눈이라도 내리고 나면 고요했던 이 섬은 더없이 숙연해지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 되었다.

비록 내가 이곳 제천간디학교에 온 지 이제 겨우 1년을 조금 넘겼을 뿐이지만, 가을 저녁 달빛이 쏟아지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2학기 가을 무렵, 날이 제법 어둑어둑해지던 즈음이었다. 밖에서 남자 아이들이 조명을 켜고 농구를 하고 있었고, 여자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기숙사 앞 나무 계단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나 역시 학창시절이라는 것을 보냈고, 나 역시 중·고등 학생 때 친구들과의 추억이란 게 있었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은 본 적이 없었다. 저녁에 하는 농구며, 친구들과 나누는 담소며, 어느 것 하나 평

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었지만, 내가 학창시절에 느껴보지 못했던 낭만을 느끼기엔 충분했던 풍경이었다. 충분히 아름다웠고, 나 또한 교사가 아닌 친구라는 존재로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하늘마루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어울려 산다는 것. 아이들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순간이었다.

그 겨울 내내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느라 힘들었다. 혼자 기숙사에서 방학 내내 지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으나, 그때를 기억하고 아이들을 추억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그때의 감정을 기록해 보고 싶었다. ✎

영경 군의 성은 뭐가요?
학년도 가르쳐 주세요.





성교육 이야기 10대의 연애

김수자(제천간디학교 교사)

모든 이가 '성'의 중요성, 청소년 시기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10대의 성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수업은 '알아야 할 성-즐기는 성-만들어 가는 성'이라는 기조에 맞추어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성교육이야기' 꼭지를 통해 제천간디학교에서 성 관련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업에서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요즘 아이들의 성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수업 밖에서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눌 것인지를 나누고자 한다.

연애하고 싶어 안달 난 녀석...

연애 깨졌다고 슬퍼하는 녀석...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분노하는 녀석...

좋아하는 감정인지 친한 감정인지 헷갈려 하는 녀석...

청소년들에게 '연애' '사랑'만큼 설레게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연애 경험이 있든 없든 연애에 대한 자기 생각과 감각을 키워 가는 것은 중요하다. 당장 연애 파트너가 없더라도 쓸데없는 공상 같아 보일지라도 연애 판타지, 연애 로망을 키우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 사

실 파트너가 있는데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더 심각해진다.

무엇보다 연애와 성경험을 객관화시켜 해석하며 성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 성적 자기주장력과 성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애, 사랑' 수업 시간에 각자 생각하는 '저렴하고 효과 좋은 데이트 방법'들을 적어 보도록 한다. 연애를 하는 중이든 아니든 간에 무지하게 쏟아 낸다. 참!! 기념일도 많고 연애하면 해야 할 일도 많다.

10일 기념

손잡고 산책하기, 놀러 가기, 머리 쓱쓱쓱 쓰다듬

어 주기, 손잡기, 포옹하기, 영화 보러 가기,

한 달 기념

가벼운 뽀뽀, 자기 전 전화와 문자, 바닷가 놀러 가기, 꼭 껴안기, 놀러 가기,

100일 기념

커플링, 커플티, 곰인형 받기, 영화 보기, 명동 거리 커플티 입고 손잡고 걷기, 뽀뽀, 타임캡슐 묻기, 키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함께하기(키스까지), 밤 공원에서 사랑한다 100번 말하고 뽀뽀 100번 하기

발렌타인 데이

꽃다발과 초코렛 같이 만들기

화이트 데이

감작 이벤트, 사탕 꽃다발과 곰인형

각종 데이트 방법

분식집 가기, 크리스마스 날 산타 분장하기, 월드컵 같이 응원 가기, 시내 싸돌아다니며 스티커 사진 찍기, 노래방 가기, 생일 때 곰돌이인형 선물받기

거리 다니기->밥먹기->카페 가기->게임방->놀이공원->선물->나무 심기->노래방->찜질방->사진 찍기->집 가기->요리->옷 사러 가기

내 생일에 어느 bar에서 20만 원짜리 장미꽃을 건네며 사랑한다 말하기

ㅋㅋㅋㅋ... 그렇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스킨십은 어느 정도일까?

일단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스킨십을 모아 본

다. 처음에야 쭈뼛대지만 보고 듣고 해 본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 손잡기
- 손 만지작거리기
- 뒤에서 안아주기
- 꼭 껴안기 (포옹하기)
- 팔짱끼기
- 어깨에 팔 올리기
- 옷위에서 가슴 만지기
- 옷속에서 가슴 만지기
- 얼굴 만지기
- 섹스하기
- 상대방 성기 만지기
- 다리 베고 눕기
- 진한 키스
- 얼굴에 가벼운 뽀뽀
- 목, 팔, 손등에 뽀뽀
- 등 쓰다듬기
- 가슴 빨기
- 머리카락 만지기
- 엉덩이 만지기
- 허리 감싸기
- 어깨 기대기
- 엉덩이 톡톡 두드리기
- 귓볼 만지기
- 상대방 바지 뒷주머니에 손넣기
- 머리 쓰다듬기
- 급 답 키스

이렇게 모아진 스킨십들을 라벨지에 적어 '할 수 있지 뭐~' '꼭 해 보고 싶어.'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해 보고 싶지만 나중에.' 4가지로 구분해서 붙여 보는 활동을 한다.

그러면 가장 첫 반응은...

'그게 어떻게 달라요?'

'난 연애 안 해 봐서 몰라요.'이다.

연애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잘 표현하며, 상대방과 소통하는 이른바 '성적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읽어 내는 것이 '성적 의사소통'의 시작이다.



채식과 밀가루 단식 문화에 대하여

김민석 기자(3학년)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채식과 밀가루 단식운동을 하는 간디인들이 있다. 채식은 육식을 피하고 식물 재료로 만든 음식만 먹는 것을 말하고, 밀가루 단식은 밀가루를 사용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교내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전자를 채식자, 후자를 밀가루 단식자라고 부른다. 여태껏 채식과 밀가루 단식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초 채식자들과 조리사 쌤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생긴 이유는 이렇다.

이번 학기 초, 조리사 쌤 두 분이 교통사고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셨다(현재는 완쾌하심). 그때 임시로 다른 분들께서 식당일을 해주셨다. 주방 일이라는 것이 호흡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시 임시로 오

신 분들께서 주방 일을 하고 계셔서 주방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임시로 오신 조리사 쌤들은 채식자 식단을 챙겨 주지 못했고, 불만이 생긴 몇몇 채식자들이 주방에 항의를 하면서 갈등이 비롯되었다. 지금은 서로 오해를 풀고 갈등은 일단락 되었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본 사설에선 그동안의 학생들의 채식과 밀가루 단식 문화를 진단해 보고 분석 및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한다.¹⁾

현재 교내의 학생 채식자는 4명, 밀가루 단식자는 9명이며, 모두에 참여하는 사람은 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²⁾

〈표1〉 채식자, 밀가루 단식자 명단

구분	채식자	밀가루 단식자
1학년	없음	없음
2학년	김태은 박성현	없음
3학년	이예슬	이예슬 이지민 안효원
4학년	없음	권효연 김민정 김예림 서명아 장우정
5학년	정나린	정나린
계	6명	9명

1) 한편, 교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의 채식자가 2명 있으나, 본 사설에선 학생들의 채식 및 밀가루 단식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제외함.
2) 이번 채식자 현황에서 인턴십 중인 6학년은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제외됨. 채식자 및 밀가루 단식자는 모두 여성임.

구분	명수
1학기 미만	1
1학기 이상 ~ 2학기 미만	2
2학기 이상 ~ 3학기 미만	0
3학기 이상	1
계	4

〈표2〉 학생 채식 기간

채식자와 밀가루 단식자들이 각 운동에 참여한 기간은 우선 채식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사람 1명, 2학기째인 경우 2명, 3학기 이상 채식하고 있는 사람 1명으로 나타났다. 9명의 밀가루 단식자의 경우 이번 학기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5명)을 넘었고, 2학기째 하는 경우가 3명, 3학기째 이어온 사람이 1명이었다.

채식과 밀가루 단식의 기간을 분석해 보니 이것은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하나의 식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식과 밀가루 단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채식자, 밀가루 단식자들에게 각각 설문을 통해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채식자들은 육식으로 인해 무자비하게 죽어 가는 동물들에 대한 미안함과 대규모 사육 방식으로 나온 건강하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이 옳지 않아 학교 안에서라도 채식을 실천하는 거라고 답했다. 밀가루 단식자들은 다이어트, 건강관리, 건강문제(아토피, 각종 질환), 밀가루의 유해성 등의 이유로 밀가루 단식을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채식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밀가루 단식자들은 건강과 미용을 위해 밀가루를 먹지 않고

구분	명수
1학기 미만	5
1학기 이상 ~ 2학기 미만	3
2학기 이상 ~ 3학기 미만	1
3학기 이상	0
계	9

〈표3〉 학생 밀가루 단식 기간

있었다. 이들은 누구의 강요 없이 자신들 스스로 채식과 밀가루 단식을 선택해 실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학기 초 갈등은 왜 생긴 걸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은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채식과 밀가루 단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채식은 이번 학기에 갑자기 생긴 운동이 아니다. 학교에 6년째 학교의 식단을 책임지고 계신 박후조 쌤은 자신이 들어오기 전부터 학교에는 채식을 하는 쌤들이 계셨고, 각 학년마다 많은 적든 채식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채식의 바람이 분 건 2009년, 2010년쯤이라고 말씀하셨다. 2011년에는 현재는 사라졌으나 07학번 김범수 학생과 이인지 학생을 주축으로 '채식자 모임'을 만들어 채식자들끼리 채식자 식단도 만들어 먹고, 식당 쌤들의 일도 덜어 드리는 등 여러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다. 간디학교에서 채식은 간디인들에게 낯설지 않을 만큼 오래된 문화 같은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채식자들은 조리사 쌤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채식이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조리사 쌤들의 도움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채식자들은 이런 도움에 많이 의존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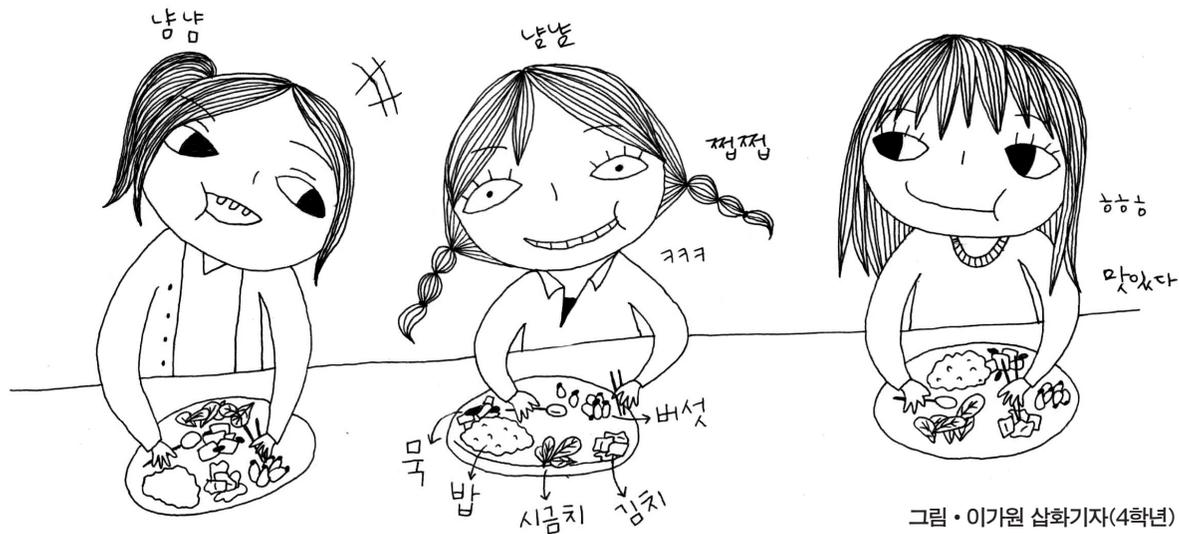


그림 · 이가원 삽화가자(4학년)

채식 밀가루 단식 내용 삽화
하나만 더 그려 주세요.

밀가루 단식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밀가루의 유해성을 다룬 3학년들(10학년)의 논문이 몇 편 나왔고, 논문의 연구 활동으로 밀가루 단식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간디인 사이에서도 밀가루의 유해성과 밀가루 단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이후로 소수의 사람들이 조리사 쌤들과 조율해 가며 밀가루 단식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이번 학기에 갑자기 밀가루 단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공식적인 활동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밀가루 단식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밀가루 단식도 채식과 마찬가지로 조리사 쌤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학교의 조리사 쌤들은 채식자를 위해서 식단에 고기가 나올 때마다 채식자들만 먹을 수 있는 채식자 식단을 따로 만들어 주셨고, 채식자 식단에 고기로부터 단백질은 얻지 못하는 채식자들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콩과 두부 등을 사용한 음식이 주로 올라왔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고기 없는 식단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밀가루 단식자들에게 밀가루가 들어간 간식 대신 과일 등의 대체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채식과 밀가루 단식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채식자와 밀가루 단식자들은 많은 부분을 주방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학기 초에 있었던 갈등과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채식자와 밀가루 단식자의 태도 역시 식당 쌤들께서 학생들을 제대로 챙겨 주시지 못하는 문제에 일조하고 있다. 몇몇 밀가루 단식자들은 밀가루를 먹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는 식단에 수제비나 전 같은 밀가루 음식이 나오면 아무렇지 않게 먹기도 하고, 가끔씩 밀가루가 들어간 과자를 먹고 있는 책임

감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 또 작년에 채식을 했던 채식자들 중 네 명이나 이번 학기에 채식을 그만뒀다. 그만둔 이유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다는 게 공통적이었다.

책임감이 없거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채식과 밀가루 단식의 경우 개인적인 활동에 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채식과 밀가루 단식은 각 운동의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채식과 밀가루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으로 하고 있으니 밀가루나 고기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고 책임감도 크게 생기지 않는다. 또 혼자하다 보니 학교나 식당 쌤들께 채식과 밀가루 단식에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 더 주방에 의존하게 되고 채식과 밀가루 단식이 발전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채식과 밀가루 단식이 주방에 의존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진 좋은 문화로 나아가려면 채식자와 밀가루 단식자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 모여서 채식자식단과 밀가루 단식자 간식의 부족한 것을 자신들이 채워 나가고, 함께 고기와 밀가루의 유혹을 견디면 학기 초의 있었던 갈등이나 책임감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혼자하면 힘들고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다면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 그러면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다. 2011년엔 ‘채식자 모임’도 있지 않았나?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실천하는 건 힘든 일이고, 분명 그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으로 채식과 밀가루 단식을 하고 싶다면 조리사 쌤들께 기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좋은 활동은 함께 발전해 나가야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고, 더 좋은 영향을 학교에 가져다 줄 것이다. 채식과 밀가루 단식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 ♣



불꽃 남자 김태우, 그에게 눈길이 간다

한 별 편집장(5학년)

간디IN의 새 코너인 '화제의 인물'은 간디학교 학생들이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거의 모든 청소년들의 꿈인 연예인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을 선사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상다반사 기자들이 학교에서 주목받고 있거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을 고르고, 전교생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화제의 인물! 첫 시작부터 한 남자의 등장으로 간디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입생의 패기와 엉뚱한 행동으로 주목받은 장경재(1학년), 연애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권효연(4학년), 교내 채식 문화를 이끄는 채식의 여왕 정나린(5학년)을 누르고 선정된 그는 바로 4학년 김태우입니다! 2014년도 학생회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체육부 장관으로 학교 운동 문화를 주름잡고 있으며, 키 183cm, 몸무게 68kg로 비주얼상 모든 여자들의 워너비입니다. 큰 키 때문인지 축구보단 농구를 잘하고,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큰 목소리 덕에 말만 하면 주목을 받는 그는 '화제의 인물'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화제의 인물로 선정된 기분이 어떤가.
그냥... 애초에 설문지에 적힌 설명이 좋아서 될 줄 알았다. 당연히(웃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어 좋았다.



2. 사람들이 당신을 화제의 인물로 뽑게 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웃음). 나에게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는 듯하다. 키가 커서?

3. 가장 자신 있는 부위와 매력이 궁금하다.

눈. 눈이라 해도 되려나. 강렬한 눈빛이 매력적이다. 한쪽만 쌍꺼풀이 있기도 하고.

4. 화보를 통해 그 강렬한 눈빛이 발산된 것 같더라. 실물보다 훨씬 잘생기게 나와서 놀랐다. 평소보다 더 강렬한 눈빛이 잘 나온 것 같다.

5. 평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나?

추리닝 스타일. 가장 간디스러운 패션인 것 같다. 편한 옷을 즐겨 입는다.

5. 요즘은 뭐 하고 지내나?

6월에 필리핀 이동학을 간다. 그래서 복근을 만들고 있다. 식스팩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 중이다.

6. 와, 전문용어가 나오는 걸 보니 허투루 하진 않는가보다. 기대해 보겠다. 평소 취미는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전부다. 학교에서의 내 생활은 무미건조하다.

7. 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는 뽀샤시한 베이비페이스로 귀여움을 받았지 않나. 현재 '마의 16세'를 넘기지 못했다는 등의 역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내가 점점 남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꼬맹이었으니까. 지금의 매력은 또 다르다.



8.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오면 난처한데...(웃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올해에는 꼭 연애를 해 보고 싶다.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함께 보내는 것이 목표다.

9. 봄이 다가오니 더 외로움을 느끼나 보다. 현재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있다. 그 외에 더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 내가 좋아할 만큼 신비한 여자다.

10. 그녀가 누군지 참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화제의 인물로 만들어 준 간디인들에게 감사하다. 화보 찍는 건 참 재밌더라.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김태우가 되겠다.

아침 화보 촬영 때도 그는 촬영을 도와주는 필자에게 '한 비서'라고 부를 만큼 화보에 심취해 있었다. 덕분에





에 화보를 통해 그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나 싶다. 이 기사를 통해 '김태우'를 더 알고 싶어졌으리라. 여론 호 '화제의 인물'도 기대해 주길 바란다!

번외 : 태우's Playlist

화제의 인물, 태우와 함께하는 음악들! 궁금하지 않나, 그가 초이스한 5개의 노래들 또한 장안의 화제가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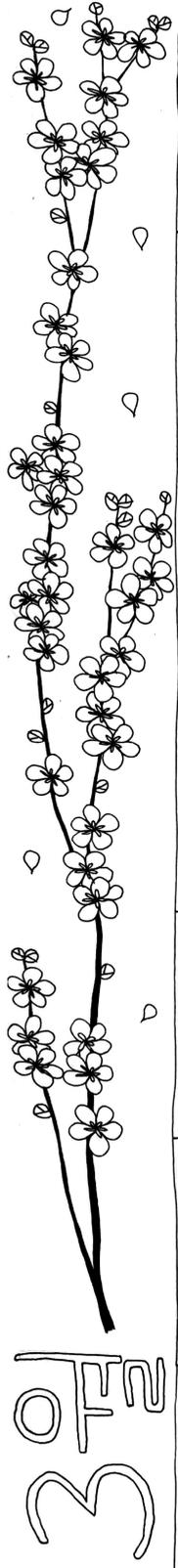
- 1. 전산실에서 컴퓨터 켜 때 듣는 노래
Queen - Under Pressure
초반의 멜로디가 익숙하고 보컬의 목소리가 매력 있다.
- 2. 기상 송으로 듣는 노래.
SO YOON - 안녕, 안녕
우리 학교 사람(5학년 황소윤 양)이 만든 노래라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 노래를 들은 뒤에 셋으러 간다.

- 3. 짜증나고 슬플 때 자주 듣는 노래.
Miika - Happy Ending
퀸처럼 미카의 목소리도 매력적이다. 뮤비도 재미있으니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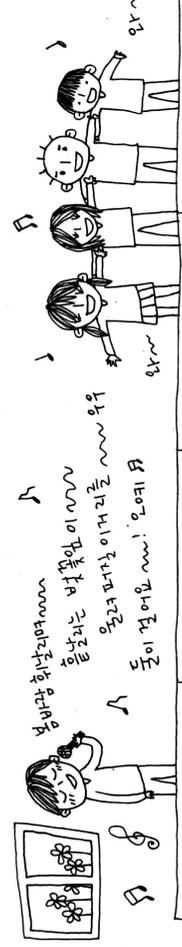
- 4. 외롭다고 느낄 때, 연애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
로이 김 - 뽐뽐뽐
이번 계절하고도 잘 어울린다. 들을 때마다 설레고, 가슴속에서 엔돌핀이 솟는 듯하다.

- 5. 여자친구가 생기면 불러 주고 싶은 노래는?
노을 - 청혼
집에 있을 때 항상 듣는다. 백사리를 많이 내면서 따라 부르는 노래다. ♪



3월

이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월 1일 * 3월인데... 놀이하다 너무 즐겁다! * * * * *	3월 2일 * * * * * * * * * * * * * * *	3월 3일 * * * * * * * * * * * * * * *	3월 4일 * * * * * * * * * * * * * * *	3월 5일 * * * * * * * * * * * * * * *	3월 6일 * * * * * * * * * * * * * * *	3월 7일 * * * * *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 * * * * * * * * * *	22 * * * * * * * * * *
23 * * * * * * * * * *	24 * * * * * * * * * *	25 * * * * * * * * * *	26 * * * * * * * * * *	27 * * * * * * * * * *	28 * * * * * * * * * *	29 * * * * * * * * * *
30 * * * * * * * * * *	31 * * * * * * * * * *					



4월

이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월 1일 * * * * * * * * * *	4월 2일 * * * * * * * * * *	4월 3일 * * * * * * * * * *	4월 4일 * * * * * * * * * *	4월 5일 * * * * * * * * * *	4월 6일 * * * * * * * * * *	4월 7일 * * * * * * * * * *
4월 8일 * * * * * * * * * *	4월 9일 * * * * * * * * * *	4월 10일 * * * * * * * * * *	4월 11일 * * * * * * * * * *	4월 12일 * * * * * * * * * *	4월 13일 * * * * * * * * * *	4월 14일 * * * * * * * * * *
4월 15일 * * * * * * * * * *	4월 16일 * * * * * * * * * *	4월 17일 * * * * * * * * * *	4월 18일 * * * * * * * * * *	4월 19일 * * * * * * * * * *	4월 20일 * * * * * * * * * *	4월 21일 * * * * * * * * * *
4월 22일 * * * * * * * * * *	4월 23일 * * * * * * * * * *	4월 24일 * * * * * * * * * *	4월 25일 * * * * * * * * * *	4월 26일 * * * * * * * * * *	4월 27일 * * * * * * * * * *	4월 28일 * * * * * * * * * *
4월 29일 * * * * * * * * * *	4월 30일 * * * * * * * * * *					



2월 26일 공동체놀이

입교 후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행사부에서 준비한 공동체놀이를 했습니다. 피구, 줄다리기의 등의 게임도 하고, 신입생과 그의 멘토가 2인3각 달리기를 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신입생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네요!



2월 28일 신입생 환영회

늘어 가는 슬픔은 잠시 접어 두고 재학생들이 곳곳한 신입생들을 맞이하며 반겨 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학생들의 자그마한 공연들과 신입생의 멘토를 맡은 선배들이 나와 멘티의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도 발표해 주고, 선물을 나누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끝난 후에는 선배들과 짝을 지어 기숙사를 같이 올라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직 학교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이 하루빨리 선배들과 친해져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요^^



3월 11일 노란봉투 프로젝트

요즘 학교에 보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노란봉투 프로젝트 또한 그런 일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교생 모두가 점심을 굶어 그 식비로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은 점심시간에는 모두 강당에 모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건의 이야기를 담아 낸 영상을 보며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낸 응원이 힘쓰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노란봉투 프로젝트란?

쌍용 자동차와 철도노조 조합원 등 파업 이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을 돕는 모금운동입니다.



3월 12일 문화의 밤 '밀양전' 상영

이번 학기 첫 번째 문화의 밤으로는 영화 <밀양전>을 상영하고,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송전탑 건설에 대한 사실들을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내 주위의 일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하여 할머니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5일 입학식

눈 깜짝할 새에 시간이 흘러 14학번이 입학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신입생이었던 것만 같은 2, 3학년들이 어느새 선배가 되어 무대를 꾸미고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14학번들도 금세 무럭무럭 자라서 학교를 맘껏 누리겠지요? 즐거운 학교생활 하길 바랍니다. :)



3월 20일 동아리 한마당

신입생들의 부푼 마음을 한층 더 부풀게 해 줄 동아리들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각 동아리 별로 새 학기를 맞아 동아리 소개를 위해 공연을 하거나 ppt를 이용해 홍보를 하는 행사입니다.

공연 위주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은 열심히 준비한 공연으로 각자 동아리들의 끼를 뽐내었습니다. 한마당이 열리는 동안, 강당 안은 신입생의 설렘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들어왔으니 올해도 더 즐겁고 활기차게 동아리들을 꾸려 보아요~^^



3월 26일 성 문화의 밤

이번 '성 문화의 밤'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뉘어 따로따로 진행되었습니다. 중등부는 조를 짜서 역할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고등부는 피임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낙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듣는 시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각자 나이에 맞춰 지루하지 않게 잘 진행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3월 28일 비폭력 서약식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비폭력을 다짐하는 자리인 비폭력 서약식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학년별 공연도 하고 '나에게 비폭력이란?'을 주제로 한 쪽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폭력 서약식의 하이라이트는 평소에 말 못했던 일, 사과하고 싶은 일 등을 무대에 나와 용기 내어 말하는 자유발언 시간이지요! 많은 학생들이 선·후배 간에 미안했던 일,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 부모님이나 쌤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 자리를 빌어서 속 시원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과 쌤들도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가족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 준 후에는 모두가 돌아가며 프리허그를 하면서 이번 비폭력 서약식은 마무리되

었습니다. 올 한 해도 다 함께 어울려 잘 살아 보아요! :) ♡





이한술 기자 (2학년)

처음으로 혼자 써 보는 글이라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어찌어찌 잘 끝났네요ㅎㅎ 이번엔 마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ㅠㅠ 다음 여름호 목표는 무조건 마감일 지키기로 해야겠어요ㅋㅋㅋ 이번에 신입기자도 뽑고, 꼭지도 정리하고, 뭔가 일상다반사가 새로워졌어요!! 활기 찬 일상다반사ㅎㅎ 앞으로 글 더 열심히 쓰고 마감도 늦지 않을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기자 (3학년)

제가 일상다반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맡은 사실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간만에 발로 뛰어다니는 기사를 씁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간디인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 날짜에 마감을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칼 마감을 하겠습니다.



안효원 (3학년)

하, 봄이 왔어요ㅠㅠ꽃은 피는데ㅠㅠ나는...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고... 그런 내 모습이 보기 좋아요♥♥커플 꺼명 하하하하 이번 봄 호는 좀 쉬엄쉬엄 잘 돌아간 feel이 느껴지는데!!!!!!에아!!!왔썬 맨!!!!우정 언니 좋아♥ 가원 언니 좋아♥ 신입생으로 들어온 성현이 좋아♥편집장 상큼 별 언니 싫을 만큼 좋아 좋아♥ 나도 좋아♥ 간디in 시러♥ 은수에 사랑을 받고 있는 정환이 샘♥ 모두 수고 찼으셨다... 그럼 난 이만.



이예슬 기자 (3학년)

이번 호는 데드라인 안에 끝냈네요ㅠㅠㅠㅠㅠㅠ꼭지 2개나 맡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재미있었고 출장도ㅋㅋㅋㅋㅋㅋ짱이었어요!! <3<3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손채은 기자 (4학년)

이번에 새로 개편돼서 탄생된 꼭지를 맡았는데, 너무 골머리를 앓았던 것 같네요 엉엉! 그래도 잘 마쳐서 너무너무 좋고, 아마 다음 여름 호엔 4학년 기자팍이 빠지겠조ㅎㅎ? 저희 보고 싶으셔도 가을 호까지 참으세요~ 그럼 이만 뽕!



이기원 삽화 기자 (4학년)

결국 이번 호도 마감을 넘겼네요... 언제쯤 마감 안에 완성할까요ㅠㅠ 별 언니 완전 사랑해! 헛. 드디어 삽화 기자도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 동생이라는것이 함정이지만, 그래도 좋네요♥ 다음부터 마감을 잘 지키는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짐) 모두 수고했어요~



장우정 (3학년)

개학과 동시에 또다시 봄 호 기획회의를 하면서부터 일상다반사 일이 시작됐네요... 늘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자 후기를 쓰다 보면 왠지 뿌듯하긴 한 것 같아요. 이번 호는 그래도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효원아, 수고했어! 그리고 이번에 신입 사진 기자로 들어온 성현이! ㅋㅋ 열심히 해 보자~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회식 가고 싶다) 그럼, 여름 호에서 시원하게 만나요~ 편집장님 짱!



김예림 기자 (4학년)

이번 호는 어쩐지 딜레마의 연속이었어요...ㅋㅋㅋㅋㅋㅋㅋ 제일 쉬운 기사를 맡은 줄 알았는데 뭔가 복잡하고 정신없고 쓰면서도 무슨 말인가 싶고... 뭘 하긴 했는데 했나 싶고...ㅋㅋ 기사 를 쓰면 쓸수록 점점 학교에 대해 해박해지는 기분이에요. 나중에는 필 샘보다 인터뷰 잘 해 줄지도 모름ㅋㅋㅋ 누굴 위한 기사인가? 어쨌든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우리 4학년은 필리핀으로 갑니다!!!! 오에오에 가서 안 까먹고 엽서 써 올 테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요\ 소식이 개편되자마자 편집장 맡아서 수고한 별 언니랑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편된 꼭지 맡은 기자들이랑 그냥 모든 사람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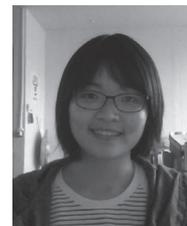
조하한 기자 (5학년)

새 꼭지를 맡았습니다. 간디 썰전에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기자들과 더 읽고 싶은 소식이 나왔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한 별 편집장 (5학년)

처음 맡는 편집장이라 너무 얼떨떨했네요. 많이 부족했겠지만 열심히 따라 준 일상다반사 친구들 많이 고맙소!!!!!!화제의 인물 화보 찍을 때 도와주었던 많은 여자아이들에게도 고맙고, 여름 호도 열심히 만들어 보시다♥ 4학년이랑 정환이도 몸 성히 필리핀 다녀오셔요.



양정호 담당샘

정환 샘 짱병 양정호입니다!

간디인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름 호에서 본격적으로 만나요^^

2014 상반기 공정여행

부탄 인류의 마지막 샹그릴라, 부탄

6월 1일 ~ 11일 (11일) / 금액 450만원~

인구 70만 명, 히말라야 자락 은둔의 왕국. 시속 20km 차가 달리는 나라. 국민행복지수 세계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하는 나라. 왕이 스스로 전제군주에서 몰러나 입헌군주정을 선언한 나라. 해발 3천미터가 훌쩍 넘는 탁상사원에서 만나는 불가의 가르침. 왕도 정년이 있는 나라. 행복이란 무엇일까, 잠시 삶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해보는 여행.



필리핀 천상의 녹색계단, 바타드 가는 길

5월 1일 ~ 5일 (5일) / 139만원~

세계 8대 불가사의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리핀 이푸가오 계단식 논을 거닐며, 바타드 마을 사람들과 뭉바키(제사장)가 함께하는 전통 축제를 즐기는,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삶이 힐링되는 공정여행 *일반인도 가능한 간편한 트레킹 코스(해발 약 2,000M)입니다.



필리핀 바기오 이고룻족과 탐아완에서 예술을

6월 18일 ~ 22일 (5일) / 129만원~

필리핀의 여름수도 바기오, 대지와 하늘을 잇는 산에서 온 사람들 이고룻들과 함께 그들의 예술마를 탐아완에서 예술인이 되어봅니다. 표현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시간, 저 멀리 안개 걷고 바기오를 내려다보는 카부야오 산 트레킹과 마닐라 필리핀 국립대학에서의 하룻밤, 당신의 예술의 혼을 이제 깨우세요.



일본 오구니 공정한 휴일, 온천 마을 오구니와 아소산

5월 10일 ~ 12일 (3일) / 95만원~

일본 3대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과 시모도오리에서의 아기자기한 쇼핑, 증기와 유황 자욱으로 그득한 오구니 마을에서 시원한 온천욕과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 세계 최대의 활화산 아소산과 사쿠라지마의 하늘초원 산책까지, 공정한 숙소, 공정한 여행, 당신의 공정한 휴일을 책임집니다.



일본 간사이 간사이, 작은 실험들을 만나다

6월 5일 ~ 8일 (4일) / 109만원~

일본의 오욕을 돌아보고 지금을 성찰하는 오사카 아시아 도서관, 시니어 200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교토 아트센터, 낮은 목소리로 전쟁의 책임을 고백하는 리쓰메이칸 국제평화박물관, 교토 장인 3대가 전해준 천연염색의 체험 마루마스 니시무라야 공방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간사이 사람들의 작은 실험들을 만나봅니다.



국내 북촌 디카에 담은 서울의 숨은 보석, 북촌탐닉 (2일)

4월 26일 ~ 27일 / 15만원

공정여행자가 가장 사랑하는 서울의 숨은 보석 북촌 한옥마을. 과거부터 현대가 고즈넉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카메라로 북촌을 담으며 원주민을 배려하고, 여행자끼리 아기자기하게 이야기 나누는 여행을 합니다. 북촌탐닉, 이제 공정여행과 함께.





2014년 1월 16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신 분입니다. CMS와 계좌 입금, 후원 물품 등 후원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이동학습비와 사회 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인의 뜻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는 해당 기간 신규 가입 후원인입니다)

CMS 후원 470명 1,310건 18,987,000원 / 계좌 입금 후원 7명 12건 160,000원

(주)두인기전 (주)한수섬유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순자 강승규 강신현 강영상 강용중 강용택 강지혜 강창석 고수원 고지철 고희라 *공정호 공지환 공치성 광영현 광용호 구경란 구미숙 구자민 권숙영 권승호 권영숙 권지현 권호정 금상호 길주연 김갑유 김경민 김경민2 김경순 김경영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환 김극준 김기만 김남수 김남식 김대서 김덕수 김도연 김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2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선 김미옥 김미정 김배홍 김백영 김병섭 김삼부 김상덕 *김석조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태 김송새봄 김수진 김승진 김양진 김영경 김영규 김영란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한 김영희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유태 김윤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2 김은영 김은정 김재권 김정라 김정미 김정일 김종성 김종우 김종원 김종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2 김진우 김진태 김태홍 김평호 김학규 김현기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림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2 김호연 김희교 김희균 남용기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류창현 마이경 마석훈 마정에 문성룡 *문성연 문신호 문효선 민병선 박경호 박기석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봉규 박성수 박성열 박영문, 김숙정 박영선 박영희 박용규 박인옥 박장식 박정림 박종명 박종주 박진수 박창순 박채영 박현준 박혜선 박혜연 박호성 박환홍 박홍식 배영수 배필늘 백동민 백동훈 백명기 백미숙 변기영 변소영 빈종일 서진섭 서희원 선미식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정현 손주영 손진근 손진윤 송윤순 송지은 신동운 신부순 신영희 신윤숙 신주영 신현덕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주연 안주현 안진희 안춘자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서희 양수연 양자영 양정숙 양화숙 양후남 여통수산(주) 오강순 오명택 오무건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익석 오익문 오정훈 오혜영 오호군 우성섭 우성호 우영희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성희 유수진 유연열 유운모 유원유통(농산물)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중선 유지상 유춘자 유택규 유한목 유향옥 유현영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한식 윤호선 은종복 이강욱 이강훈 이경숙 이광일 이근행 이기하 이동우 *이동근 이명조 이명희 이미경 이미경2 이미경3 이민주 이보완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윤 이상현 이상훈 이석운 이선애 이선재 이성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미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2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이승연 이승욱 이승환 이양환 *이영주 이예준 이오순 이요훈 이용수이윤승 이윤철 이은신 이은희 이재성 이재웅 이정석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태 이정환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는 이준용 이진석 이진우 이철희 *이태구 이한진 이현주 이혜림 이호창 이흥구 이화숙 임남규 임반석 임병모 임성희 임영배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성운 장영순 장일경 장진숙 장현섭 장형철 장희석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봉국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종철 전주란 정경훈 정다운 정명숙 정문자 정문희 정상인 정석현 정성욱 정연경 공정호 김만우 *김석조 조찬규 조창아 조철연 지연철 진상정 진성기 진영승 진은주 진정란 차상진 차영순 채서운 채신자 천희진 최경우 최도연 최문택 최상운 최선주 최선희 최숙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용 최인화 최일훈 최재민 최재화 최재훈 최준현 최진웅 최홍석 하승렬 하영아 하윤주 하태광 한광덕 한상철 한용택 한현 허미경 허성희 허영순 허인영 형제수산 홍금자 홍기봉 홍수연 홍원희 홍원일 황국덕 황돌남 황명숙 황선태 황소연 황인명 황인숙

- * 09 최소은, 12 최형서 부모님께서 느타리버섯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 * 06 우도연 부모님께서 사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 * 13 김창수 부모님께서 사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 * 이달용님께서 의약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 * 11 서명아 부모님께서 사과즙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 * 제주도에서 학생이동학습을 진행해 주셨던 변진현 선생님께서 한라봉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기존 회원 분들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 서류 제출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653-5791/ 팩스 043)653-5798 / 고희라 010-2620-8891



계간《간디IN》2014년 봄 호(통권 30호)



제천간디학교지 계간《간디IN》2014년 봄 호(통권 30호) / 발행인 손진근 / 편집장 한별 / 담당 교사 강정환, 양정호 / 기자(현년순) 하현, 김예림, 손혜은, 이기원, 정우경, 김민석, 안효원, 이매슬, 이현슬 / 편집 및 제작 사인화채 / 발행일 2014년 5월 10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고리 92-3(9편번호 390-852) 전화 (043)643-5971 ~ 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



그림 • 조익준(4학년)

발

조익준(4학년)

오늘도 내가 땅을 밟고, 아스팔트를 밟고, 복도를 밟고,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발.

전 세계에 있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러 갈 수 있는, 아니 가게 해 주는 발.
소중하고 고맙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서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만약 발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이 발처럼 간디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청소년

일본 규슈 선입견을 넘어 공존으로, 규슈 역사평화 공정여행

5월 2일~5일 (4일) / 125만원~

일본 최초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는 조선에서 강제 징용 당한 50만명의 넋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는 현대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알리는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령왕이 태어나고, 임진왜란 당시 기지가 설치된 히젠나고야에는 이제 미움과 분노를 넘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한 일 미래를 여는 공정여행, 이제 시작입니다.

- 여행 사진책 발간, 공정여행증명서, 안전행정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활동 : 타케와 시 인권센터 · 유네스코 기록유산 · 사가현 박물관 · 가라쓰 성 탐방, 일본 전통 가옥 스테이 등



필리핀 여행학교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

1차: 7월 21일~8월 2일 (초중생 25명 / 13일) / 185만원~

2차: 8월 4일~16일 (중고생 25명 / 13일) / 185만원~

루손섬 중북부의 2천년간 계단식 논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푸가오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들의 문화를 만납니다. 이촌향도와 급격한 관광화로 인해 무너져가는 계단식 논을 복원하는 작업을 참여합니다. 필리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시빈민지역인 바공실랑안에서는 어린이 공부방 활동 및 홈스테이를 진행하며 편견을 넘어 그들과 친구가 되는 여행을 합니다.

- 여행수기집 · 사진책 발간, 국제기구 공정여행 증명서, 안전행정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활동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복원, 이푸가오족 전통 축제, 홈스테이, 빈민지역 공부방 교사



서유럽 서유럽 인문학 여행학교

7월 12일 ~ 22일 (11일) / 495만원~

유럽 인문학의 심장 소르본대학교, 유럽 친환경 도시공학의 메카 프라이부르크, 협의회 경제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세계 석학들의 성지 하이델베르크, 프랑스 미술사학 전문가와 돌아보는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龐피두센터까지, 스쳐지나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 속에서 고민하고 상상하고 배우는, 청소년이라면 서유럽으로 인문학 여행학교를.



공정여행이란?

사람과 만나는 여행, 지역의 삶을 배우고 지역민이 운영하는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여 자립을 돕는 여행, 걷는 여행을 지향하여 지구와 공생을 꿈꾸는 여행, 속임이 없고, 옵션과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 여행입니다.

공정여행 공통사항

- * 개인 용돈(기념품, 간식, 자유시간 등)을 제외한 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공감만세> 검색 후,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문의 042-335-3600 / fairtravelkorea@gmail.com 요청하시면 상세한 자료집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상호 (주)공감만세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30번길 41 (주)공감만세 대표 고두환
전화 042-335-3600 FAX 042-367-3333 메일 fairtravelkorea@gmail.com
홈페이지 fairtravelkorea.com 공식카페 cafe.naver.com/riceterrace
사업자 등록번호 305-86-10687 관광업 등록번호 제185호-대전광역시 중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번호 제 2012-061호
인허가 보증보험 (주)서울보증보험 제100-000-2013 0160 3053호